

〈IT기반 모디노믹스〉 삼성전자 ‘디지털 인디아’ 중심에 서다

文대통령-이재용 첫 만남 기대감
13억 인구 잠재력 ‘넥스트 차이나’
스마트폰·가전 등 시장공략 강화
오늘 휴대폰 신공장 준공식 열려

삼성전자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인구 약 13억 명 규모의 인도는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G2 시장’의 대안으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위협요소가 된 가운데, 인도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편
삼성전자는 9일 오후 인도 노이다 신공

장 준공식에서 새로운 대규모 인도 현지 투자 및 사업확장 계획을 발표한다. 인도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타임스는 “이번 사업 확장 계획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스마트폰, 냉장고 및 평판 TV를 생산하는 노이다 공장 확장에 투자를 발표한 지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젊은 인도 청년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운동’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의 접견 자리에서 “삼성”은 단순한 외자기업이 아닌 인도 로컬기업으로서 인도의 미

래를 같이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유치 약속이 행을 환영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공식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우타르프라데시주(州)와 손잡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돕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20곳을 오픈하기도 했다. 이 센터에는 삼성의 TV, 냉장고 등 가전뿐 아니라 초음파 기기, 엑스레이 등 삼성의 첨단 의료 장비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신공장 준공식은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과 한국 대표 기업을 이끄는 이 부회장의 만

남을 계기로 정부와 대기업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날 삼성의 윤부근 부회장, 고동진 IM부문 사장과 함께 인도로 출국한 이재용 부회장은 문 대통령, 인도 정부 관계자 등을 직접 영접하고 연단에서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뉴델리 인근 도시 노이다에 들어선 신공장은 1997년 설립된 기존 스마트폰 공장 규모를 2배로 증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8000억 원을 공장 증축에 투자했다. 신공장이 하반기부터 가동되면 스마트폰 생산량은 기존 월 500만 대에서 월 10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다.

송영록 기자 syr@

나상욱·김세영, 미 프로골프 동반 V ‘코리안 데이’



제미교포 케빈 나(한국 이름 나상욱·35·왼쪽)가 9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스펀스프링스의 울드 화이트 TPC(파 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밀리터리 트리뷰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김세영(25)은 이날 미국 위스콘신주 오노디의 손베리 크리크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72홀 역대 최저타와 최다 언더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관련기사 13편 AP/뉴스

美 ‘FAANG’ vs 中 ‘BAT’ 바이두·알리바·텐센트 G2 ‘IT 군단’ 제3국서 대리전쟁

각자 집에서 밥그릇 뺏길 일 없이 자란 우량아들이 밖에서 맞붙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 얘기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각자의 앞마당인 아닌 제3국에서 치열한 대리전을 벌이는 미국의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과 중국의 ‘BAT(바이두·알리바·텐센트)’에 주목했다.

양국은 상대국의 IT 공룡들이 자국으로 들어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로 울타리를 쳤다. 게다가 지난주 서로에게 350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

의 관세 폭탄을 쏟아대며 무역 전쟁까지 선포해 양국 IT 군단들이 직접 맞붙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대신 이들은 제3국에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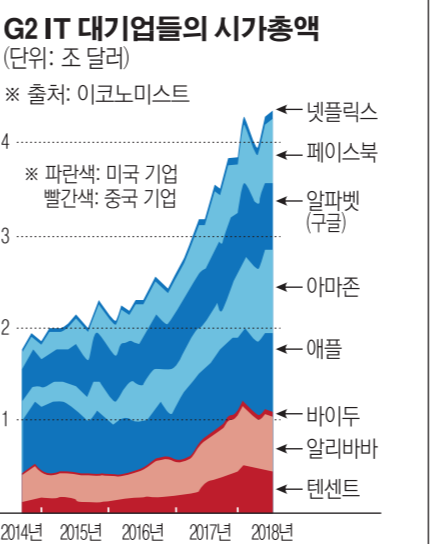
FAANG 군단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들 기업은 자본을 들고 브라질과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시장으로 뛰어들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 편 만들기’ 대결을 하고 있다. 미국의 공룡들은 해외 시장을 기업 이름으로 도배하고 있다. 마·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인터넷 사용 국가인 인도에 아마존은 50억 달러를 들고 들어가 현지

기업에 자신들의 제품과 네트워크를 복제·구축하고 아마존 브랜드를 입혔다. 구글은 500개 철도역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깔았다. 반도체 칩 업체 퀄컴도 인도 스타트업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경쟁사들은 현지 시장 저변에 녹아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 이름을 내걸지 않는 대신 현지 기업에 투자한다. 인도의 페이티엠, 빅바스켓, 인도네시아의 토크피디아, 싱가포르의 라자다, 파키스탄의 다라즈 등 현지 유명 IT 업체들의 뒤에는 모두 중국 기업들의 후원이 있다.

특히 중국은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



로 프로젝트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중국 인접 국가 내 수억 명의 소비자들을 중국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중국은 이러한 청사진으로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정면으로 맞설 뜻을 여실히 표출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 육박...정부 재정부담 증가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1000조 원에 육박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발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국채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말 보고서를 통해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권고한 결과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991조

8547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국채가 660조7061억 원이고, 특수채는 331조1486억 원이다.

두 채권의 잔액은 월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5월 말(996조1799억 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달 잔액이 다시 늘어나 4일 기준 994조69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년간 국채 잔액이 6~8월에 증가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은 1000조 원을 돌파할 가

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잔액은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수채 잔액은 2016년 말 337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338조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달 말 331조 원대로 다시 감소했다.

반면 국채 잔액은 2016년 말 581조 원에서 지난해 말 615조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상반기에는 순발행액이 45조4777억 원으로 반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채를 예년보다 더 많이 찍어내서 가 아니라 상환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드 로이드 앱)

일상이 되다 습관이 되다 행복이 되다

평소대로 쓸 뿐인데 자동저축 효과
체크카드 결제 자투리 저축
나의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Daily 절약 재테크 저축

KDB산업은행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제외)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3년(연 단위)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납입금액: 월 10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적용금리 **최고 연 4.10%**
(연 2018.7.1 기준, 기간별 3년 정기예금에 준하는 Daily 절약 재테크 전용으로 우대금리 0.50% 적용)

KDB산업은행
고객상담전화 1588-1500 / www.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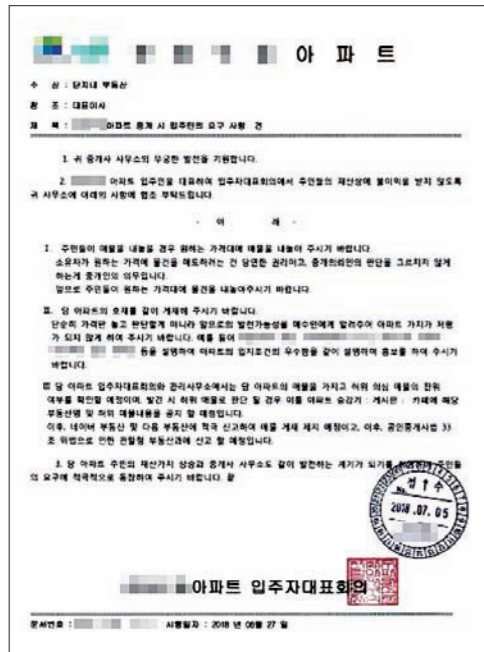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 첫거래 가능

(1) QR코드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 '바로 입출금통장' 개설

(2) 바로 입출금통장 개설 후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

※상기 이율은 2018.7.1차 세전 기준이며, 시장금리 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안되는 본 은행에 있는 귀의 모든 예금보도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8-07-001호(2018.07.03 - 2019.07.02)

단속 아랑곳 않고... 온라인 '집값 담합' 판친다



5일 동탄신도시 H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발송한 공문. 공문에는 단지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용 SNS 커뮤니티 '밴드'서 목표 집값 구체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공문 보내 협조 종용하는 등 담합 행위 여전 국토부, 처벌 근거 지지부진...공정거래법상 부녀회 등 규제 어려워

국토부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집값 담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여전히 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5일 동탄신도시의 H아파트에서는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공문 한 통이 발송됐다. 이 공문은 △입주민이 원하는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을 것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향후 호재를 알려주어 아파트 가치가 저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저가의 허위 매물을 내놓을 시 포털사이트에 허위 매물 게재로 신고하거나 관청에 신고할 예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은 간접적으로 담합을 시사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담합 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다. H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모인 SNS 앱 '밴드'에서는 "인근 단지 시세는 4억 원 중반에서 5억 원인 데 반해 3억 원대인 우리 단지만 저평가돼 있어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공인중개사들과 만나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거나 "포털사이트 허위 저가 매물 신고를 자주해 시세가 상승한 인근 단지처럼 우리 단지도 허위 저가 매물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오가고 있었다. 이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목표 집값과 향후 행동지침 등을 구체화한 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종용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단지의 입주민들은 현재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저가 매물로 많은 거래를 일으켜 수수료를 쟁기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의 의도적인 집값 낮추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시세를 벗어나도록 가격을 올리거나 내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데다, 현재 매매가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단지 시세가 정상이라는 의미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월 공인중개사들에게 집값 담합을 종용하기 위해 압력 등을 행사하는 입주민들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이 같은 담합행위가 일부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집값 담합 근절 방안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논의 중이지만 언제 도입될지 말할 만큼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으로 행법에 근거해 집값 담합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행위의 특성상 별도의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태일의 손한수 변호사는 "담합을 규제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인데 사업자가 아닌 부녀회나 입주민협의회는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행법의 업무방해나 강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검찰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담합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입주민들의 매매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는 공인중개사가 입주민들을 고소, 고발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행 형법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포스코 '최정우號' 조용한 출범 준비

그룹 내 요직 두루 거쳐 사정 밝아 인수위 없이 보고 형식으로 인수인계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포스코의 새 회장 후보인 최정우 포스코컨텍 사장이 인수위원회 없이 회장 취임을 준비하고 있다. 최 후보는 이달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회장직에 오른다. 최 후보는 회장 취임까지 18일 남은 상황이지만, 별도의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권오준 회장의 경우 2014년 취임 전 인수위 성격을 띤 '혁신 포스코 1.0'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최 후보는 포스코그룹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대신, 해당 근무자로부터 보고받는 형식으로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사 이후 포스코 재무실장,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 경영전략실장,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기획재무본부장,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 등 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 특히 가치경영센터장 때에는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경력이 있어, 그룹 사정에 능통하다. 이 때문에 굳이 인수위를 두지 않고, 필요한 사안만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포스코컨텍 사장인 최 후보는 본사가 있는 포항과 서울을 오가며 취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 회장직을 두고 최 후보와 막판까지 경쟁했던 장인화-오인환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등의 거취도 관심사다. 포스코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정기주총이 열리는 만큼, 취임 직후인 이달께 이들에 대한 인사는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포스코컨텍 사장직은 공석이 되는 만큼, 이 회사의 사장 선임은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주총에서 사내이사 교체가 이뤄지면, 주총일 14일 전에는 관련 안건이 공시돼야 한다. 주총 당일과 공시 당일을 제외하면 12일이 공시 마지노선인 셈이다.

포스코는 최 후보가 회장으로 취임하면 철강 생산, 판매에서 탈피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그룹 내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준양 회장 시절 과잉됐던 포스코그룹 투자사업의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15년 포스코 가치경영실장을 맡은 그는 글로벌 저성장, 철강 경기 위축과 함께 신규 투자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포스코의 그룹 구조 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올해 2월부터는 포스코컨텍 사장을 맡아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신소재 분야를 경영하기도 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인력감축 없이 영업점 폐쇄"... 박진회 승부수 통했다

〈씨티은행장〉

씨티은행, 지난해 영업점 89곳 통폐합 비자수익 개선...52시간제 대응도 유연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 대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임금과 단체협약으로 그간 있었던 법적 다툼 등도 마무리됐고 지금은 노사 합의도 원만하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PC-OFF제 도입과 동시에 한 주간 35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국내 시중은행이 골머리를 앓는데도 씨티은행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듯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현재 노사 간의 갈등이 가장 적은 은행으로 평가받는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별다른 잡음 없이 이뤄지는 이유다. 여기에는 1년 전 박진회 씨티은행장이 추진한 새로운 영업 전략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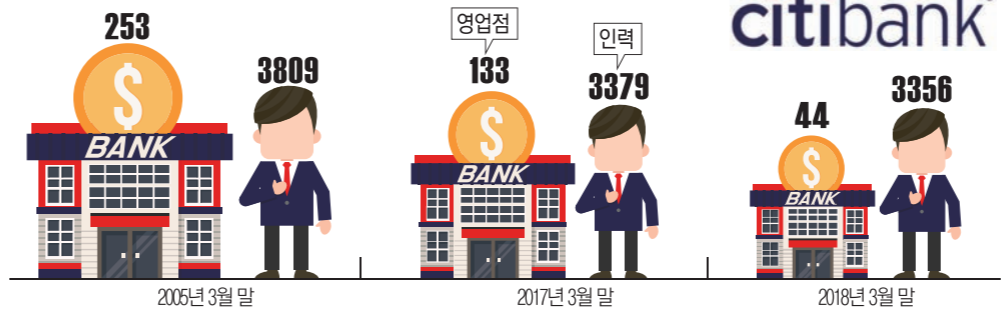
2017년 7월 박 은행장은 '차세대 소비자 금융 전략'을 내세우면서 영업점 통폐합 작업을 지시

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133개 달했던 씨티은행의 국내 지점 및 출장소수는 올 3월 말 기준 44개로 대폭 줄었다. 2004년 한미은행과의 통합 이후 영업점이 253개(2005년 3월 말 기준)까지 불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 10배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박 은행장의 통폐합 작업은 녹록지 않았다. 당시 일각에선 대규모 영업점 통폐합은 사실상 소매 영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에 필요한 사전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박 은행장은 임직원들에게 영업점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강행했다.

다행히 지점 철수는 씨티은행의 영업 전략과 맞물렸다. 씨티은행은 지점 영업에서 국내 시중은행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점차 온라인 금융이 활성화하던 시기였고 실제로 씨티은행의 고객 중 95% 이상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

씨티은행 영업점 및 인력 추이



했다. 영업점 통폐합과 관련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폐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은행장은 인력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영업 전략에 힘을 보냈다. 영업점 폐쇄로 인력 감축을 우려했던 800~900명의 영업점 직원들은 현재 대부분 씨티은행의 통합자산관리(WM)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영업점을 폐쇄하는 대신 특화점포 체제를 통해 비자수익을 늘리겠다는 씨티은행의 전략에 따른 조치였다.

이러한 전략은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씨티

은행의 올 1분기 말 기준 영업이익(연결기준)은 959억 원으로 지난해 901억 원과 비교해 6.4%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73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개인·상업금융 부문에서 비자 수익을 5배 넘게 늘리면서 은행권의 '이자 장사'란 비판도 불식시켰다.

한편 2014년 10월 씨티은행장에 취임한 박 은행장은 지난해 9월 22일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로 임기 5년차에 접어든 박 은행장은 현재까지 은행권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다.

박진산 기자 jinsan@

물에 가치를 담습니다! 물로 행복을 전합니다!

기름과 홍수 걱정 없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물로 모두가 차별 없이 물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수변공간을 향유하고 물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미래와 가치의 물이 되겠습니다.

K-water,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행복을 이끌어갑니다.

건강한 물순환 | 스마트 물관리 | 미래 사업 기반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

물이 여는 미래 | 물로 나누는 행복 | K water

“인프라 시장 등 발전 가능성 높아… 장기적 투자 필요”

‘넥스트 차이나’ 인도 공략

인도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변화를 꾀하며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 받고 있다. 통합간접세 도입과 유통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환경이 개선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복잡한 사회·문화 시스템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 등 한국 기업 446개사 진출 = 지난해 한국의 대인도 무역수지는 10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73년 수교 이후 140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대인도 수출 비중은 전체의 2.6%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인도를 꼽고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는 총 446개사다. 지역별로는 델리 인근 164개사, 첸나이 172개사, 뭄바이 푸네 79개사, 벵갈루루 31개사 등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장이 있는 델리 인근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첸나이에 주로 집중돼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포스코,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롯데건설 등이 인도 현지 인프라 및 건설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세, 해운 등 분야의 교류 확대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신한은행이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푸네, 하데라바드, 아메다바드 지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은행이 첸나이 구르가온, 뭄바이에서 기업은행은 뉴델리에서 지점을 영업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이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인도 양국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더불어 조세, 항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경제지표 개선 기반으로 과감한 규제개혁 중” =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더욱

작년 대인도 무역수지 101억 달러

1973년 수교 이후 1400배 ‘경증’ 삼성전자·포스코 등 446개사 진출

13억 인구·높은 성장세·규제 개혁…

복잡한 사회·문화 시스템은 걸림돌

전문가 “철저한 시장조사 후 진출해야”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Modi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에 힘입어 인도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주(州)별로 다르게 징수하던 상품과 서비스의 간접세 세율을 통일했으며 외국인 투자를 최대 49%로 제한했던 단일 브랜드 소매유통업의 자본투자 제한도 철폐했다. 이런 변화로 인도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지난해 기준 100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계단이나 상승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키워드로 ‘I.N.D.I.A.’를 제시하며 인도 시장으로의 적극 진출을 독려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키워드 ‘I.N.D.I.A.’는 △Improving economic indicators(경제지표 개선) △Numerous people(13억 인구 대국) △Deregulation(과감한 규제개혁) △Infrastructure(유망한 인프라 시장) △Aim long-term(장기적인 투자)의 약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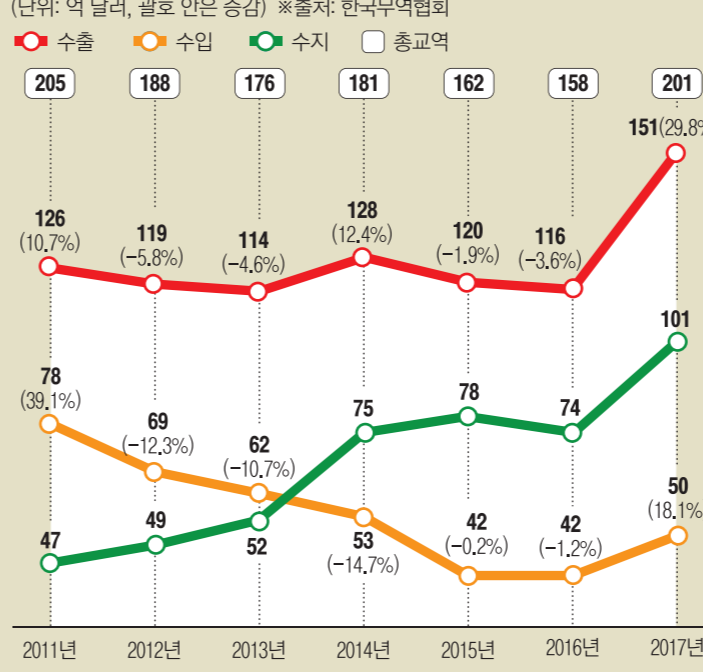
다만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상 단기 내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인도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과의 논의 절차가 필요해 의사 결정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세안 국가 진출 시 즉 자전환까지 3-5년이 걸리는 반면 인도는 5-10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아세안에 비해 2배가량 더 걸린 셈이다.

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인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많은 인구와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성영 기자 moon@

전경련이 제시한 인도공략 키워드 I.N.D.I.A

I	Improving economic indicators	경제지표 개선
N	Numerous people	13억 인구 대국
D	Deregulation	과감한 규제개혁
I	Infrastructure	유망한 인프라 시장
A	Aim long-term	장기적인 투자

최근 한·인도 교역 추이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 현황

(2015년 4월 기준) ※출처: KOTRA 뉴델리, 뭄바이 KBC

지역	기업수	주요 업종	주요기업	
델리 등 NCR지역	164	전기·전자	33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POSCO 등
		건설·중공업	31	
		자동차·기계	27	
		무역·물류·운송	22	
		금융	8	
		건설링	9	
		화학	9	
		도소매	5	
		의료	5	
		기타	15	
첸나이지역	172	자동차 및 부품	102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등
		건설·중공업	15	
		제과	1	
		전기·전자	15	
		무역·물류	15	
뭄바이·푸네지역	79	금융 기타	24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 STAR-CJ 등
		제조업	32	
		건설·중공업	6	
		운송·물류	11	
		도소매·유통	13	
벵갈루루 지역	31	연구개발	11	삼성연구소, LG소프트,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제조업	11	
		건설·공사업	1	
		도소매·유통	3	
		농림·수산업	1	
기타	4			
계	446			

싱가포르 경제사절단 72개사 참여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하현회 LG 부회장 등 130명
12일 비즈니스 포럼… 스타트업 교류·협력 확대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에 맞춰 한국 무역협회(무역협회)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72개사, 130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9일 무역협회는 11-13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하현회 LG 부회장, 정택근 GS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10개 대기업 대표가 포함돼 있다. 48개 중견·중소기업 대표로는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다.

오토젠, 미래인더스, 바인그룹, 이스턴네트웍스, 메쉬코리아, 타임교육, 모담코리아 등 경쟁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13개 기관·단체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박기봉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으로는 박 회장과 더불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규봉 이사장,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황현배 이사장 등 총 10개 협동조합 대표가 동행한다. 이들은 싱가포르 순방 전 3박 4일 동안 인도 순방에도 동행한다. 인도 순방 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이며 싱가포르 순방 경제사절단은 무역협회가 주관했다.

12일 문 대통령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뒤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를 이어간다. 12일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8일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동행 경제사절단 명단

대기업 (10개)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LG	하현회 부회장
GS그룹	정택근 부회장
씨제이제일제당	김원상 상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송진화 대표이사 사장
현대글로벌서비스	안광현 대표이사
대한항공	이병호 동남아시아본부장
우리은행	조서형 싱가포르지점장
(주)풍산	류진 회장
주요 중견·중소기업 (48개)	
쌍용건설	김석준 대표이사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SM그룹	우오현 회장
SPC그룹	허영인 회장
(주)웅니시스템	박해린 대표이사 회장
(주)메타바이오메드	오석승 회장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이사
(주)타임교육	이길호 대표이사
모담코리아	고은주 사장

양국 간 스타트업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싱가포르 순방을 맞아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인도-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 진출할 때 싱가포르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스마트 교통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서 정책·인프라·시장 역량을 갖춰 싱가포르와의 정책 협력이 비교적 쉽다”며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우리 기업들이 심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만 기자 aaaa3469@

흔들리는 장하성...보폭 넓히는 김동연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 '최저임금' 논란 이어 국민연금 CIO 인선 개입·낙마 결정적 김, 혁신성장·규제혁신·세법 개정안 등 '경제 사령탑' 위상 강화

박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낙마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박 전 대표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실장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도 정립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관 전 대표의 기금운용본부장 낙마는 장 실장의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낙마 사유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중 하나인 병역 문제였지만, 마찬가지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례와 비교하면 형

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에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을 놓고 야권에선 '윗선 개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논란' 이후 장 실장의 입지가 변했다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는 장 실장과 달리 김 부총리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노골적으로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지난달 27일에는 청와대 정책실 산하 3명

의 수석비서관 중 경제·일자리 등 2명이 교체됐다. 이달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포함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자 당·정·청이 일제히 난색을 보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사회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윈윈'으로서 팀워크를 다졌고,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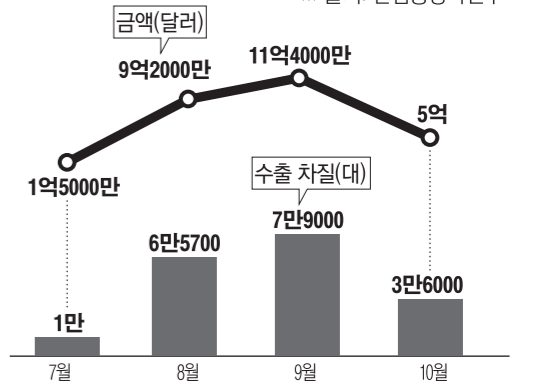
여기에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2019년 세법 개정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2년 전 '악몽' 재현되나

2016년 파업으로 27억 달러 손실 올해 수출 부진...파업 시 큰 타격

2016년 완성차업계 노조 파업 자동차 수출 손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다 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현재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등 미국의 거센 통상압박과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등도 격정스러운 부분이지만 당장 우리 수출에 피해를 주는 것은 완성차업체의 파업이란 것이다. 이는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업체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수출 손실을 보았던 2016년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전체 수출의 40%에 육박하는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업체 노조 파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파업이 마무리된 10월까지 19만700대의 수출 차질이 빚어졌다.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억 1000만 달러 손실을 본 것이다. 특히 파업이 절정에 달했던 9월의 경우 11억 4000만 달러의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서 9월 전체 수출의 2.6%포인트 감소 요인이 됐다. 이에 당시 주현환 산업부 장관은 부분파업에서 전면파업으로 전환한 현대차 노조에 파업 철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완성차업계 노조 파업과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의 여파로 2016년 수출액(4955억 달러)은 전년도보다 5.9% 감소했다. 다음 해인 2017년 12월에도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34.2% 줄었다. 올해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경쟁 심화, 원화 강세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5월까지 자동차 수출액(169억 3000만 달러)은

지난해보다 4.1%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문명기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2016년 때처럼 완성차업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로 우리 수출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작년처럼 부분 파업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면 수출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 투표를 벌여 투표자 4만 4782명 중 65.62% (3만 308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앞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둔 만큼 현대차 노조는 10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이고 이후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대비 5.3%인 11만 6276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힌두교 성지 방문한 문대통령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인 '악샤르담 힌두사원'을 방문, 이동하던 중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인도·아세안, 4강에 준하는 협력 파트너”

김현중 통상본부장, 新남방정책 유동망·자금조달·투자 촉진 지원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현지시간) "한국과 인도, 아세안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싱가포르의 GIC(싱가포르 투자청), 테마섹(Temasek), 말레이시아의 카자나내셔널 펀드 등 세계적인 국부펀드와의 네트워크를 우선하고, 양국 유망 기업 간 협력의 장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도 뉴델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 "인도·싱가포르 정상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라며 "문재인 정부는 G2(미국과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는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 인도를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비롯한 아세안과 인도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아세안 국가와 인도와의 경제 협력에서 중국·일본과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세안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이외에는 양자 FTA를 체결한 바가 없고, 인도와도 그 중요성에 비해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김 본부장은 "이제는 인도·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그간 신남방국기와 협력 전략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략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개별 전략을 따로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델리(인도)=신동민 기자 lawsdm@

추경호 “조선·철강업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선업·철강업 등 일부 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9일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의 증가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가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 의원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허용 요건인 자연재해·재난 이외에도,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일시적인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법정 근로시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활용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학교 안의 깨끗한 물,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물

굿네이버스는 깨끗한 물 지원을 통해 지구촌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학교 중 식수가 없는 학교, 49%
-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걷는 거리, 6km

굿워터프로젝트

검색

‘납품업체에 갑질’ 과징금 롯데백 ‘불복 소송’ 승소

서울고법 ‘납품사 자발적 사은품 행사 대규모유통업법 예외에 해당’ 소송낸 5개 백화점 중 유일하게 이겨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소송을 낸 백화점 5개사 중에서 승소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76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사업부인 롯데백화점이 2014~2015년 사은품 무료 증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사전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해당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한 공정위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소송 제기했고 1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료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행사가 실시돼 대규모유통업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사 기간 동안 각 업체가 달성한 매출액과 행

사 지출 비용을 비교하면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거의 없고, 백화점이 얻은 부당이득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6개사는 납품업체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계약서를 나눠주거나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부담시켜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5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K플라자 8억8000만 원, △NC 6억8400만 원, △갤러리아 4억4800만 원, △현대 2억3000만 원, △롯데 7600만 원, △신세계 35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6개 백화점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하고 모두 공정위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NC백화점은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취하했고,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급심에서 패소했고, AK백화점은 하급심에서 패소했으나 상고로 포기해 공정위 처분이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롯데쇼핑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에서는 롯데쇼핑이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효력을 가져 공정위를 상대로 한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만 진행된다. 윤한솔 기자 charmy@

섬머 페스티벌 닥트 경기 ‘후끈’



2018 피닉스 섬머 페스티벌이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 14개국의 닥트 선수들과 국내 닥트 동호인들이 출전했으며 대회 총상금은 약 1억3600만원이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 경찰 부실수사 ‘도마 위’

전남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은 아빠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경찰의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숨진 A(16) 양이 아빠 친구 김모(51)씨에 의해 살해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행

적과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9일 현재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 양 시신에서 김 씨가 구입한 수면유도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김 씨 집과 차량에서 A 양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김 씨를 A양을 살해한 범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양이 실종 전 김 씨와 만나기로 한 사실을 SNS 등을 통해 확인했지만, A 양과 김 씨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만나,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 이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없

는 점은 이번 수사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시신 발견 지점이 김 씨 부모의 못자리와 가깝고, 김 씨가 부근에 차를 주차한 사실까지 확인했음에도 실종 8일이 지나야 시신을 발견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는 A 양을 찾겠다며 A 양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는 등 주술적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여성 노출사진 인터넷 유포, 2심서 실형

재판부 “사회적 인격적 살인, 사과 제대로 안돼” 벌금 대신 징역형

인터넷에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6년 3월 이 씨는 개인 블로그에 성명 불상 여성의 노출 사진을 A 씨의 사진과 함께 올려 마치 노출 사진이 A 씨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A 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성 댓글을 남겼다. 이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만든 블로그 이름을 A 씨의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하게 설정해 제3자가 블로그를 봤을 때 A 씨 남자친구가 A 씨의 노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믿게끔 했다. 이로 인해 A 씨의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까지 이 사건을 알게 됐고 A 씨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여지가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씨가 범행 직후 개인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이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으나 이 씨는 사과글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올렸고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게시했다”며 “이는 블로그에 올린 노출 사진이 전체 공개였고 그 밑에 단 댓글이 한글이었던 점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드루킹 특검’ 김경수 소환 언제쯤... 경공모 집중 조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주어진 수사 기간의 5분의 1을 수사기록 분석, 증거 수집, 경제적공직화모임(경공모) 핵심 인물 등을 집중 조사하는 데 소요했다. 허 특검의 수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의혹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의 소환, 혐의 입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은 7일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공모 핵심 관계자를 중점적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초반 특검은 기존 수사자료, 증거 등의 분석과 함께 드루킹뿐만 아니라 ‘서유기’ 박모 씨,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 씨, ‘솔바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 ‘살의축제’ 윤모 변호사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드루킹은 지난해 28일 처음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에 다 말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내 결심공판에서 “자동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행 명령이 아니고 네이버 약관 역시 모든 서비스에 자동차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른 조사자들 역시 변호사 앞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댓글 조작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여했거나 인지했는지, 이를 통한 여론조작에 대한 대가로 관직 인선이 논의됐는지 등 주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경수 도지사의 소환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특검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0@

MB 자금관리 前청계재단 간부 집행유예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무국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처남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금강의 자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공동정범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 씨에게 건넨 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도 돈을 전달해 횡령을 방조한 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박미선 기자 only@

Hanmi 한미약품
광고심의필 : 2018-1436-1200

한창 크는 손주들,
텐텐으로 딱딱
밀어주세요!

소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New 성분강화 어린이 영양제
성장·발육에 **텐텐**®
추정

자일리톨, 코엔자임큐텐 함유 · 비타민, 미네랄 강화

딸기맛의 카라멜 타입

텐텐은 가까운 약국에 있습니다.

성장기, 허약체질 어린이의 **텐텐**®
성장·발육에 **텐텐**®
추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보호 방점...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

금융감독역신 17대 과제

취임 두 달을 맞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 현안에 관한 대외 메시지는 '소비자 보호'로 압축됐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등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소비자 보호와 금융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행위는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최근 논란이 된 '대출금리 부당 산정' 관련 금융사를 제재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전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 점검·엄중 처리 -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역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부당산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등 저축은행별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한다.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했을 때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우선 금융사와 임직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다. 은행법상 '불공정행위'

임직원 등 법적 처벌 근거 마련

금리 산정체계 개선·공시 강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도입 전문검사역제 통한 셀프연임 차단

로 명시하는 등 법 개정에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금감원은 부당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은행 내규 위반이라 제재가 쉽지 않다고 봤다.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내놓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각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윤 원장은 또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과 은행 간 비교공시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역시 대출금리 관련 모범규준 개정에서 나선다. 수수료도 개선 대상이다. 금융상품 모집과 운영, 해지 등 판매 단계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나간다.

윤 원장은 다만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자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금융감독역신 주요 과제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주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 전담 전문검사역 제도 신설·운영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 규제·감독 강화 -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지분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 시행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 가격결정체계, 투명성 합리성 설계·운영,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자양 -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 공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사후구제 내실화	- KIKO, 안보현,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 소비자 입장에서 처리

당국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건드리는 것 관련 은행권에서 "영업 기밀 침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피해에 집중- 키코·안보현 피해 구제 주목 =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윤 원장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다. 다수 분쟁조정 진행 내용을 공시해 비슷한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키코(KIKO)' 사태 피해자와 안보현·즉시연금 분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윤 원장의 오랜 관사사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에 피해기업 재조사를 권고했다. 당시 윤 원장이 적극적으로 키코 재조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조사에 소극적이던 금감원은 최근 전담반을 꾸려 피해기업 5곳 조

사에 나섰다.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삼성생명 등 경고장 = 윤 원장이 주목한 또 다른 축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이다. 그는 통합그룹감독법 제정 등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발언이다. 삼성전자가 지분 5억815만 주(7.92%)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법 제정으로 당장 자본적 정성이 118%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미 당국은 2일부터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8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16조 원 상당 삼성전자가 지분을 5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

'셀프연임' 논란을 빚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을 막을 방안도 내놓는다.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분기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 초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도 시급한 문제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대출금리 부당산정 논란 등 모두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윤 원장은 우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 실효성을 높여 '내부자신고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내부 통제 실패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삼성생명, 보험료 카드 납부 압박 '자구책'

종신보험 계약이체 할인 특약 폐지

삼성생명이 일부 종신보험의 계약이체 할인 특약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보험료 카드 납부 압박 속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지만, 사실상 보험료 인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할인을 축소 조정 방안을 전국의 대리점과 독립법인대리점(GA)에 고지했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행 시기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상품은 △생할자금 받는 변액 유니버설종신보험 △통합생활 자금받는 유니버설종신보험 △간편가입 유니버설종신보험이다.

내달부터 신규가입 대상 적용 "사실상 소비자 보험료 인상"

았지만, 고객 반응을 살핀 뒤 전(全) 상품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가입자가 자동 계약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연 보험료의 1% 할인을 준다. '빅3'인 교보, 한화생명 역시 같은 혜택을 제공 중이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20년 납입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고객은 7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다.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은행들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1%대에 머물고 있고, 보험료 최저보증 이율(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보험사가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율) 역시 2~2.5%

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의 이같은 움직임이 금융당국의 '보험료카드납부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카드로 보험료를 낼 때마다 결제 금액의 2%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금리로 인해 연 4%대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이달 말까지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및 부담율'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에 이어 국회에서도 '보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며 보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A 생보사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박선연 기자 sun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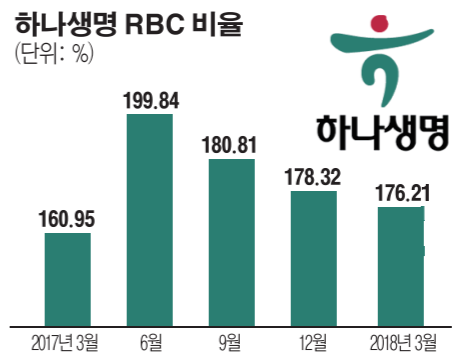
하나생명, IFRS 17 선제 대응... 3분기 500억 자본 확충

RBC 등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논의

하나생명이 올 3분기 5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새 회계제도(IFRS 17)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하나생명이 500억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소폭 개선됐던 건전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하나생명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올 3분기 중으로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하나금융지주와 협의해 거친 뒤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3분기 중에는 자본확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생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본확충을 하는 것은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하나생명의 지급역력(RBC)비율은 176.21%였다. RBC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100%가 넘으면 보



험사가 전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자본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RBC비율은 작년 자본확충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작년 1분기 160.95%였던 RBC비율은 4월 자본확충 이후 2분기 199.84%로 개선됐지만 3분기 180.81%, 4분기는 178.32%에 이어 올 1분기까지 연이어 줄어든 것이다.

자본확충 규모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아직 지주와 협의 중"이라며 "규모

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4월 7일과 21일 각각 300억 원, 200억 원 규모로 총 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결정했다. 따라서 올해도 5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식은 유상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상승 기조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기가 없거나 30년으로 긴 특성상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용기 일괄서비스, 4대보험 신고 일괄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사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중 더블스타 체제 새출발 금호타이어, 노조 목소리 커진다 재계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어지나

금타 사외이사 최홍업 교수 선임
경영전반 노조 입장 반영할 듯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서울시 현재 22명 노동이사 활동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도입 잇따라

금호타이어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그 파장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9일 금호타이어와 재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6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산업은행이 추천한 최홍업 조선태 교수를 사외이사(노동이사)로 선임했다. 노동이사 선임으로 향후 금호타이어 경영 전반에 노조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일원으로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9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독일의 경



김중호 금호타이어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호텔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최홍업 조선태 교수(노동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 사진제공 금호타이어

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별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4년 노동이사제 도입을 선언했고 2016년 9월 '근로자 이사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

인 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임기 3년의 노동이사(비상임)를 뒤야 한다. 현재 서울시 출연 기관에는 22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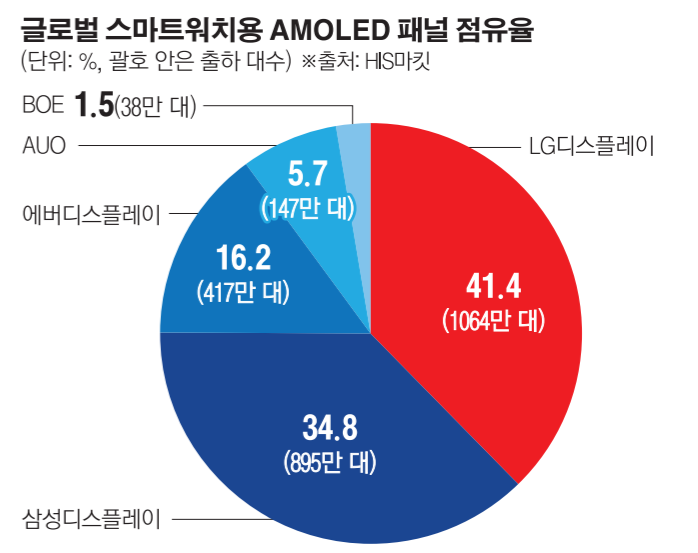
금호타이어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향후 재계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운영

노동이사제	
정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하는 제도
장점	노동이사를 통해 현장 경영을 경영에 반영 가능
단점	이사회 결정 과정 지연 우려, 경영권 침해 우려
참고사항	유럽의 경우 19개국에서 시행 중으로 보편화된 제도

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 역시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수용하고 최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런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기업 의사결정 과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독일도 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 정 추천을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로 사실상 엄밀한 의미의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GD “고맙다, 애플” 스마트워치 패널시장 ‘세계 1위’ 41% 점유... 1060만대 애플 공급

LGD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용 AMOLE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64만 대의 스마트워치용 AMOLED 패널을 출하해 41.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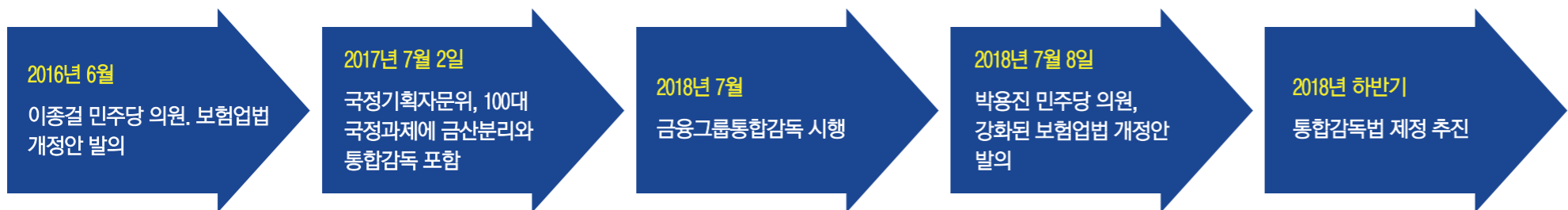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가 895만 대를 출하하면서 2위(34.8%)에 올랐고, 중국 에버디스플레이(417만 대·16.2%)와 AUO(147만 대·5.7%)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처음 중소형 올레드 패널 사업에 뛰어든 중국 BOE((Beijing Oriental Electronics)는 약 38만 대(1.5%)로 5위에 올랐다.

LGD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스마트워치 활약에 힘입어 시장에서의 선두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한 스마트워치용 올레드 패널은 총 1475만 대로, LG디스플레이는 이 가운데 70%가 넘는 1060만 대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22년까지 이를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하반기 출시 아이폰 신 제품에 올레드 패널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양사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해외 매체들은 “LG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을 200만~400만 개 규모로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LGD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시장 리더인 애플에 패널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된다면, 최근의 실적 부진에서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치는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기능을 비롯해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 사물인터넷(IoT)과의 통합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업계는 3~4년 뒤에는 전 세계 웨어러블 시장에서 스마트워치가 손목밴드 점유율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그룹 금산분리 유도하는 관련법 추진 일지



금산분리 ‘태풍’ 몰려오는데... 답답한 삼성 “어쩌나”

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내놔
지분매각 기한 7년서 5년으로 단축
정부 지배구조 개편 압박도 거세져

정부가 삼성에 대한 금산분리 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만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

안을 8일 내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넘는 14조3000억여 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여 원 등 16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엔 지분 매각 기한을 애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선 안 된다’는 규정도 담겼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 증권사 등 다른 업종과 달리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시민단체는 현 보험업법이 ‘삼성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2014년 19대 국회 때 기시 식 의원(민주당)이 보험사의 지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자 2016년 6월 20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똑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의원이 2년 전 발의한 법

안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좀 더 강화됐다. 삼성은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꼭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또 금융당국이 2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면서 삼성그룹은 수년 내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을 팔아 치우거나 이에 해당하는 최대 30조 원의 자본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안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좀 더 강화됐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유도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인 삼성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글로벌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경영권을 위협받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영록 기자 syr@

20억 달러 해양플랜트 수주전 한국 vs 싱가포르 막판 혈전

일감 놓치면 조선업 경쟁력·주도권 잃을 수도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또다시 한국과 싱가포르 업체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플랜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조선업 부활의 열쇠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수주전에 우리 조선업계 전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일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이 발주한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O) ‘로즈뱅크 프로젝트’가 조만간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북해 서틀랜드 군도에서 175km 떨어진 해상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수주 규모만 약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2000억 원에 달한다.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현재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싱가포르 ‘셴코프 마린’이 경쟁 중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역시 이번 수주전에 뛰어들이지만 중도 탈락했다. 싱가포르의 최근 몇 년 사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강력한 라이벌 국가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조선 빅3도 싱가포르 기업과의 수주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싱가포르에 일감을 빼앗기면 사실상 플랜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싱가포르의 셴코프 마린은 우리 조선업계에 여러 차례 ‘쓴잔’을 마시게 한 장본인이다. 작년에는 노르웨이 석유회사 스타토일이 발주한 ‘요한 카스트버그(Johan Castberg) 해양플랜트 입찰에서 국내 조선 3사를 제쳤다. 로열더치셴이 발주한 멕시코 만 ‘비토(vito) 프로젝트’의 부유식설비(FPU) 물량 역시 셴코프 마린이 오랜 거래와 신뢰를 앞세웠던 삼성중공업을 누르며 막판 수주에 성공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결과가 반복되면서 싱가포르가 해양플랜트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조선기술에 근접한 싱가포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 속속 수주 성공을 반복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이마트 만물잡화점 ‘삐에로쇼핑’ 1030에 통했다

개점 11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명 돌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입소문 타고 급증
젊은층 다시 오프라인 매장 찾아 고무적



이마트가 선보인 만물잡화점 ‘삐에로쇼핑’이 개점 열 하루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삐에로쇼핑’의 누적 방문객이 총 11만 명(자체추산)을 기록했다. ‘사진 촬영, 절대 환영’이라는 매장 콘셉트에 걸맞게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2만 5000여 건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주렁주렁 매달린 상품들, 곳곳에 나뉘는 ‘키치(Kitsch)’적 유머 코드의 문구 등 ‘혼돈의 탕진점 블랙홀’이라는 이 매장 콘셉트가 10~30대 감성을 관통하면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잘 정돈된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상품을 추천받기보다 복잡하게 매장을 구성해 직접 보물찾기 하듯 상품을 찾아보고 놀 듯이 자유분방하게 만지고 써 볼 수 있는 ‘언택트(Untact, 비접촉)’ 쇼핑을 선호하는 10~20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문화적 ‘엄숙주의’를 배격하는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듯 ‘쉬쉬’하며 판매했던 성인용품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흡연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해 지하철 객실 콘셉트의 흡연실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 시도들이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이마트의 ‘혁신 DNA’는 ‘트레이더스’를 통한 명품 직소싱, ‘일렉트로마트’를 통한 체험형 매장, 고급 신변잡기 키덜트 전문점인 ‘하두디’ 등 다양한 MD 실험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며 유통 노하우를 집약해 온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젊은층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다는 점이 고무적

인 것으로 회사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 열흘간 매장을 방문한 신세계포인트카드를 사용한 고객 데이터와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고객 비중이 각각 17.3%와 36.8%로 절반 이상(54.1%)을 차지했다. 10~20대 고객이 많은 삐에로쇼핑 특성상 전체 구매 고객의 30%가량만이 신세계포인트카드 회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마트(32.2%) 대비 21.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곳곳에 포진된 ‘킬러 아이템’이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가장 시선을 끄는 매장 입구 ‘아일랜드’ 공간에서 3~7일 동안만 짧게 치고 빠지는 ‘스팟(Spot) 판매’가 대표적이다. 100~200원짜리 과자(초콜릿, 초코바 등)의 경우 열흘간 3만3000개가 팔려나갔으며 7000원짜리 ‘팬픽’ 브랜드 티셔츠는 평일 2700여 장, 주말에 3200여 장 판매됐다. ‘도라에몽’ 낮잠쿠션(1900원), 3만 원대 나이키 운동화, 1000원짜리 라면(5인) 역시 하루 평균 500개 이상이 팔려나갔다.

유진형 이마트 삐에로쇼핑 BM은 “국내 처음 선보인 만물잡화점 삐에로쇼핑이 출범 초기 성공 안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반기 중 동대문 ‘두타’에 개점하는 2호점 역시 필수 방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j@

집에서 간편하게 '꿀피부 프로젝트'

여름철 작업하는 햇빛과 따가운 자외선으로 피부가 몹시 건조하고 있다. 이에 뷰티업계는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 관리가 가능한 홈케어 뷰티기기를 업그레이드해 홈뷰티족을 겨냥하는가 하면, 마스크 팩 한 장으로 멀티케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을 내놓는 등 여름철 비수기 돌파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홈 뷰티기기로 꼽히는 LG프라엘은 이달 초 '프라엘 컴팩트'를 출시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객층 확대를 꾀한다. 기존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되 약 15% 가격을 낮추고 제품 패키지를 줄여 휴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프라엘 컴팩트 제품 가격은 4종 풀패키지에 163만6000원이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듀얼 모션 클렌저 컴팩트(21만9000원)' 제품 1대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LG프라엘 관계자는 "피부 고민이 늘어나는 여름을 맞아 휴대성은 높이고 가격 부담은 줄여 휴가지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크코리아는 이달 초 여름철 피부 밸런스를 맞춰 주는 피부마사지기 '스킨비비드'를 론칭했다. 스킨비비드는 온열과 냉각 모드로 피부 밸런스를 맞춰 주는 핫앤콜 마사지가다. 히팅 모드는 온열 마사지로 피부의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스칸케어 제품의 흡수를 돕는다. 쿨링 모드는 냉 마사지로 모공을 일시적으로 축소해 화장에 도움을 주며 눈의 부기와 근육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론칭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제모기, 각질제거기, 마스크팩 등 여름 바캉스 필수템 5종을 19만 원 특별가에 제공한다.

여름 휴가지에서는 노출이 많은 옷을 입게 되는 만큼 제모도 필수다. 브라운에서 출시된 '실크 엑스



LG생활건강 벨리프 아쿠아밤 슬리핑마스크.

**홈케어족 타깃 뷰티기기 업그레이드
업계, 여름철 비수기 정면돌파**

**LG프라엘, 기존 제품보다 15% 저렴한
휴대성 높은 컴팩트 패키지 출시**

**온열·냉각모드 스킨비비드 마사지기
바캉스 필수템 '레이저 제모기'도**



삼계탕도 집에서 간편하게...

유통업계 가정간편식 삼계탕 대거 출시
국내산 영계에 녹두·전복 등 넣어 프리미엄급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삼계탕 가정간편식 시장이 뜨거워진 것은 물론 계속 가격 하락으로 닭고기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발표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사먹는 삼계탕 가격이 지난달 서울 기준 1만4077원으로 전년 동기(1만2599원)보다 1478원, 10% 이상 상승했다. 이에 외식 대신 전문점 맛을 재현해 낸 프리미엄 삼계탕 간편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봄을 앞둔 2주간(6월 26일~7월 9일) 홈플러스 자체상표(PB) 간편식 삼계탕 매출은 전년 대비 20%, 전주 대비 48% 이상 신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올해도 초봄 시즌을 앞두고 삼계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물량을 대폭 늘렸다. 특히 홈플러스는 계속 브랜드 하림과 손잡고 '올여바우터 하림 콜라보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

공유화 홈플러스 HMR팀 개발담당자는 "전문점 맛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6개월간의 사전기획개발 단계를 거친 것은 물론 맛을 좌우하는 원료육 퀄리티 증대를 위해 하림과 손잡고 삼계탕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45~55호 닭고기를 썼다. 여기에 마늘, 찹쌀, 녹두 등 신선한 재료를 푸짐하게 담아내 프리미엄 삼계탕의 정수를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처음으로 가정간편식이 출시됐다. 버거 및 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시한 가정간편식 '맘스터치 삼계탕'이 판매 개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6만 개가 완판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탕 가정간편식의 아성인 아워홈도 올해 6월 삼계탕 가정간편식 제품 매출액이 전월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국물취향 72 고령삼계탕 닭반마리(600g, 7000원)'는 1인용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보양식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닭 한 마리로 구성된 제품보다 가격도 30%가량 저렴하다.

아워홈 관계자는 "더운 여름철 불 앞에서 오랫동안 끓일 필요 없이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길 수 있어 소비자 호응이 좋다"며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로 인해 보양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닭고기 소비자가격(중간 품)은 kg당 4776원으로 전년(5546원) 대비 13.9% 저렴해 올해에는 삼계탕용 닭고기 판매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시세가 하락하면서 닭고기 자체 수요도 급증했다. 이마트 계속 매출 신장률은 2018년 상반기 기준 6.7%를 기록했으며, 이마트 측은 올해 삼계탕용 닭고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현준 이마트 계속 바이어는 "올해는 닭고기 시세가 작년 대비 소폭 떨어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용 닭고기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작년보다 기획 물량을 20%가량 늘려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퍼트 IPL'은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다. 기존 가정용 IPL 제모기와 달리 피부 톤을 체크해 일일이 레이저 세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 제모 시간은 대폭 줄이고 사용자 편의는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팔, 다리 등 넓은 부위도 단 8분 만에 제모할 수 있다.

화장품 브랜드도 손쉽게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식물성 효소 성분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케어하고 빛나는 피부로 바꾸어 주는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링 마스크'와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 클렌징 파우더'를, LG생활건강의 벨리프는 잠든 동안 수분을 집중 케어해 피부를 촉촉하고 맑게 가꾸어 주는 '아쿠아밤 슬리핑 마스크'를 선보였다. 이니스프리는 제주 바닷속 해조 원료를 그대로 담은 '씨워드 수딩 마스크' 4종을 여름 한정으로 출시했다. 미역, 다시마의 독특한 짭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트와 에센스도 차별화했고 외부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에 진정 및 콜링 효과를 준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이 되면 피부의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땀과 피지 등 노폐물이 쌓이면서 모공이 늘어나게 된다. 피부 탄력은 한 번 떨어지면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집에서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뷰티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피부과나 에스테틱의 전문 관리에 비용 부담이나 시간 부족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

'국산 쌀 소비' 팔 걷은 식품업계

간편대용식·즉석 냉동밥 상품화 앞장... 유기농 쌀 건강 스낵도

나날이 국민들의 쌀 섭취량이 줄어들어 쌀이 남아돌자 식품업계가 국산 쌀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신제품 출시로 이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최근 '마켓오 네이처'를 론칭하며 간편대용식 시장에 진출했다. 오리온은 2016년 농협과 합작법인 오리온농협을 설립하고 약 620억 원을 투자해 경상남도 밀양에 간편대용식 생산공장을 건설했다. 마켓오 네이처 브랜드의 탄생은 남아도는 쌀을 두고 고민하던 농협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마켓오 네이처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중에 가장 많이 남아도는 것이 쌀"이라며 "밀가루 소비 증가가 쌀 소비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 2008년 75.8kg이던 소비량은 지난해 61.8kg까지 줄었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소비량이 오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농업계에서도 잉여 쌀을 두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민이 깊다.

사장이 이런 가운데 식품업계가 쌀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면서 농업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슬레코리아의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 '거버는'은 최근 양행의 유기농 쌀로 만든 건강

스낵 '거버 오가닉 쌀떡볶'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네슬레가 100% 국내 재료만을 엄선해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건강 스낵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우수한 품질의 쌀이 사용됐다.

네슬레코리아 관계자는 "네슬레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과 우수한 품질의 국내 유기농 쌀이 더해져 전 세계 육아맘을 만족시킬 건강 스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마트는 냉동 즉석밥 '밥맛 좋은 밥'을 출시했다. 이마트는 밥벌이 부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냉동밥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인당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냉동밥 및 즉석밥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링크아츠에 따르면 2014년 210억 원 규모였던 냉동밥 시장은 지난해 700억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업계에선 올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고민 끝에 밥맛 좋은 밥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쌀을 더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일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www.kogas.or.kr



바르게 닦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美 문 닫혔다”... EU와 연합 노리는 中

16~17일 中-EU 정상회담서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논의 트럼프 제기 ‘중국 리스크’에 EU도 공감... 연합 어려울 듯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글로벌 기업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약속을 실천에 옮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기어코 관세 폭탄을 투하,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중국은 발 빠르게 유럽연합(EU)과의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EU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리스크’에는 공감하는 터여서 中-EU 간 진정한 동맹은 요원해 보인다.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측은 16~1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中-EU 연례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 장 클로드 융커 EC 집행위원장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 앞서 리커창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난다.

리 총리는 유럽 순방 중 6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동유럽 국가 정상들을 만나 중국 시장 개방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회담에서 “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EU의 지난해 무역 현황 ※ 출처: 유로스타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스위스	러시아	일본	한국
EU 수출 (단위: 10억 유로)	375	198	151	86	60	50
EU 수입	255	375	110	145	69	50
EU 무역수지	120	-176	40	-59	-8	0

수호하며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면서 “무역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며 중국은 무역전쟁에 먼저 나선 적이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 접근성을 계속 확대할 것이며, 그것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호소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반격의 일환이다. 미국은 6일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가운데 340억 달러 상당의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중국도 동등한 규모의 보복에 나섰다. 중국 시간으로 같은 날 정오에 관세 부과가 자동 발효되면서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브루노 르 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영상프로방스에서 이코노미스트들과 기업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더 이상 의문이 아니

다”라며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FT는 미국과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EU가 이번 中-EU 연례 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중국과 EU는 2013년 쌍방간 시장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투자 조약을 추진했다. 두 지역은 상호 간에 중요한 시장임에도 다방면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쌍방간 투자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EU와의 투자협정 협상은 뒷전으로 물러났고, 이번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핀 앨런앤버리의 잭 왕 변호사는 “(중국의) 자유화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자유화 개혁을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파트너 사이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다. EU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철강을 포함해 배터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오펜저스 등 28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겼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180억 유로 규모의 생필품에 대한 맞불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당국자들은 EU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항하고자 중국과 손잡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이든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유럽 기업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처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압력과 규제, 특히 중국 국유 기업의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강요할 때의 압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르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영상프로방스에서 FT에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역에서 유럽을 분할하는 것인데, 중국 역시 똑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리 총리가 서유럽이 빠진 중-동유럽(CEEC) 16개국 모임인 ‘16+1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장 개방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FT는 최근 중국과 EU의 관계가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 협정 협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상하이증시·위안화 가격 푹푹 “中금융 ‘차이나쇼크’ 때보다 심각”

WSJ “기관투자자 매도세 주도 이번 침체국면 장기화 가능성 커”

올해 중국 증시 부진과 위안화 가치 하락은 2015년 있었던 시장 혼란의 고통스러운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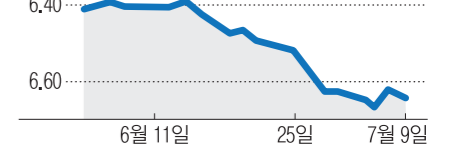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현재 중국 금융시장의 부진은 2015년의 경험과는 또 다르다고 설명했다. 3년 전 ‘차이나쇼크’ 때 겪었던 갑작스러운 추가 위안화 가치 폭락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올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7% 하락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벤치마크 중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위안화는 6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해 3.6%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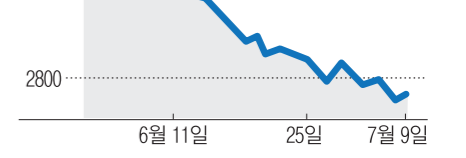
현재 이러한 침체가 3년 전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이유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기관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주로 국영기업과 같은 우량주를 선호한다. 전문가들은 국영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보아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이미린 캐피탈시큐리티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과거 시장이 하락했을 때 우량주들이 뒤쳐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매도세 역시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번에도 우량주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량주들의 추가 하락은 상하이종합지수를 크게 침체시켰다. WSJ는 3년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주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랜덤 창 시애타인베스트먼트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매수 추이



상하이증시 추이



최고경영자(CEO)는 “2015년의 시장 침체는 갑작스럽게 왔다가 금방 갔지만, 이번 침체 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부채 관리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 경제의 근본적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면서 5월 중국 내 신용공급은 절반 이상 줄었다. 2분기 들어 중국 경제는 투자와 소매판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 올 초부터 마-중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증시 하락세를 부추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주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본격 개시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맞물려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진 점도 중국 금융당국에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정책입안자들은 중국 금융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터키, 열차 탈선으로

10명 사망·73명 부상

8일(현지시간) 터키의 테키르다주에서 이스탄불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해 있다. 이날 탈선 사고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키르다/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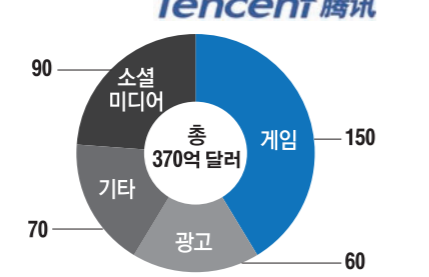
챔피언으로 성장 ‘텐센트’ 두고 딜레마에 빠진 中 정부

첨단 기술 위해 IT 적극 육성 10억명 사용 메신저 ‘위챗’ 거짓 뉴스 전파 등 위협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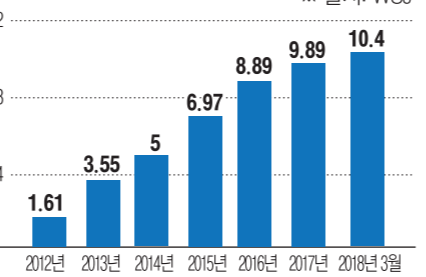
중국 IT 거인 텐센트를 두고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텐센트가 중국을 대표하는 챔피언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공산당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첨단 기술 육성을 위해 IT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중이다. 이에 텐센트가 중국의 개인과 기업, 정부 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요 통로로 부상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텐센트의 메시징 앱 플랫폼인 위챗은 최근 몇 년 동안 성장해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의 대표 챔피언이 됐다. 세계적 기업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성과다. 중국인들은 위챗을 이용해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결제하며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기고 뉴스 기사와 의견을 공유한다.

지난해 텐센트 사업별 매출



위챗 월간 실질 사용자 수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쥐려는 당에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위챗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반체제 활동에 쓰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새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된 이후 텐센트는 최소 두 차례 이상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중국 법에 따르면 텐센트는 뉴스피드와 기타 플랫폼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국가 통일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콘텐츠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국 정부는 위챗 곳곳에도 감시망을

설치했다. 위챗을 통한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 채팅방 참여자는 500명으로 제한되며 100명을 넘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국영 통신사가 검증한 휴대전화 계정에 연결해야 한다. 텐센트 측은 서버에 위챗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으며 접근 권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관계자들은 텐센트가 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시지를 저장하고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텐센트 관계자는 정부가 위챗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해외에서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손길은 위챗을 넘어 텐센트의

게임, 모바일 결제 등 다른 부문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지난해 사설에서 텐센트의 모바일게임 ‘왕자영웅(Honor of Kings)’ 탓에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해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홍콩증시에서 텐센트 주가는 3% 이상 하락했다. 텐센트는 18세 이하 사용자의 게임 시간을 제한했고 마화딩 텐센트 회장은 인민일보 편집국을 방문해 임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그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텐센트 임원들은 마 회장이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텐센트의 라이벌인 알리바바 등도 정부의 조사를 받으려 위챗이 소셜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하면서 더욱 강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X.L. 덩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알리바바는 물건을 사고파는 소비자 서비스일 뿐이지만 텐센트는 선전과 정보 확산 기능이 있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주혜 기자 winj@

CEO 라운지 40세 넘어 스타트업 일군 창업자

허핑턴·루빈 50대에 기업 세우 50대, 30대보다 성공 확률 2배

다년간 경험으로 이해·지식 쌓아

미국 실리콘밸리는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성공 신화로 유명하다. 이 때문인지 창업은 젊은이의 전유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창업자들이 있다고 최근 CNBC가 소개했다.

아리아나 허핑턴(사진) 허핑턴포스트 창업자는 55세의 나이에 온라인 매체를 만들었다. 미디어 평론가로 활동하며 오랜 경력을 쌓은 덕분이다. 그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도 가졌다. 허핑턴 포스트의 성공 후 66세에 앱 개발업체 스텔라이브글로벌을 설립했다. 허핑턴은 “2005년에 허핑턴포스트를 공동 창업하고 2016년에는 스텔라이브글로벌을 시작했다”며 “나는 내 실수로 배우기에 충실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더는 망설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는 당신이 성공적 기업을 시작할 원한다면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비판과 반대론자들의 시각을 내재화하지 않기가 쉬웠다”고 덧붙였다.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겸 콘센시스 창업자는 기업가이자 역만장자가 되기 전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컴퓨터와 전기공학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음반산업에도 종사했다. 루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비트코인을 접하면서 블록체인을 접하게 됐다. 그는 “이 기술을 접했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을 만들고 콘센시스를 설립한 2014년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루빈은 “그 당시는 나의 ‘이더리움 모먼트(이더



리움에 몰입한 순간’였다”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그의 순자산은 10억~50억 달러(약 1조1165억~5조5825억 원)로 추정된다.

토마스 시벨 시벨시스템 설립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경험을 활용해 성공했다. 오라클을 비롯해 주요 IT기업의 임원으로 경력을 쌓은 시벨은 41세에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시벨시스템을 설립하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시벨 시스템은 오라클이 50억 달러에 인수할 정도로 성공했다. 이후 시벨은 한 번 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며 에너지 회사 C3를 세웠다. 이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C3IoT 회사를 발전시켰다. 그는 사업 과정에서 자신처럼 나이가 많은 숙련된 직원들을 고용한다.

벤자민 존스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주도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하는 IT 스타트업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5세이며 50대 창업자가 30대 창업자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 교수는 “젊은 사람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이해와 지식으로 혁신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좋은 펀드”

‘국내 가치투자 대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일등기업에 장기 투자·소수 펀드·투자 지혜 공유 ‘3원칙’ ‘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설정 10년 누적 수익률 156.87%

“아직도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좋은 펀드를 추천해 달라는 고객들이 많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펀드가 진짜 좋은 펀드다.”

강방천(59)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부로 통한다. 올해는 그가 2008년 6월 에셋플러스를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7월 가치투자펀드 ‘리치투게더펀드’를 출범시킨 지 10년째 되는 해다. 펀드 출범에 앞서 세운 원칙은 세 가지다. △소수 펀드에만 운용할 것 △일등기업에 장기 투자 △투자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원칙이 그것이다. 여러 개 펀드보다 소수의 펀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이 그의 투자 철학이다.

원칙과 철학은 성과로 이어졌다.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이익 성장을 지속하는 일등기업에 주로 투자해 온

‘코리아리치투게더 펀드’는 펀드 설정일(2008년 7월 7일) 이후 지난달 1일 현재 누적 수익률이 156.87%에 달한다. 강 회장은 4일 열린 리치투게더펀드 10주년 기념 운용보고회에서 “꿈은 변치 않는 철학과 원칙으로 운용되는 100년 펀드를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강 회장은 “10년 전 적은 돈으로도 위대한 기업들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투자가 펀드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출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금융위기 여파에 시장이 무너지고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3개월 사이에 고객들이 800억 원을 환매하고 떠났다.”

그는 “시장이 공포로 가득한 기간에 철학과 원칙을 믿고 인내한 투자자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위대한 기업이 가져다주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4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2018 에셋플러스 리치투게더펀드 10주년 운용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는 빛나는 장기 투자 성과를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10년 단위로 큰 위기가 왔던 터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안다”면서 “하지만 1등 기업에 투자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의 시선은 이제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내년 초 ‘슈퍼아시아’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0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 중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그의 ‘가치투자 철학’을 그대로 적용할 생각이 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정현백 장관 “여성들의 생생한 외침 잊지 않을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해회역 인근에서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현장에 다녀온 뒤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해회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현장에 조용히 다녀왔다”며 “많은 여성들이 노상에 모여 함께 분노하고 함



께 절규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직접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스크린과 스피커를 이용해 전해지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었다.

정 장관은 “해회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빠른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j@

7년 만의 우승...PGA 통산 2승

케빈 나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다”

재일교포 케빈 나(35·한국이름 나상욱)가 7년 만에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케빈 나 9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실러 스프링스의 울드 화이트 TPC(파 70·7286야드)에서 열린 ‘2018 PGA 투어 말리타리 트리뷰트 옛 더 그린브라이어’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하며 6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1타를 친 케빈 나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04년 PGA 투어에 뛰어난 케빈 나 2011년 10월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후 7년 만에 PGA 통산 2승째를 거뒀다.

케빈 나 5타 차로 우승 인터뷰 도중 한국어로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우승해서 기쁩니다. 믿어주시고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윤석금 회장 차남 윤새봄 전무, 웅진 사업총괄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차남 윤새봄(사진) 웅진씽크빅 대표가 ㈜웅진 사업운영총괄(전무)로 9일 선임됐다. 윤 전무는 경영 전면에서 교육·출판, 생활가전, 레저 등 웅진그룹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그는 미시간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웅진씽크빅 전략기획팀, 웅진케미칼 경영판

리팀 등을 거쳐 ㈜웅진 기획조정실장,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룹 요직을 거치며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료, 그룹 및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담당해왔다. 이날 웅진그룹은 ㈜웅진 IT 사업부문 대표에 이수영 전무, 웅진씽크빅 대표에 이재진 전무를 각각 내정했다. 한편 윤 회장의 장남인 형민(41) 씨는 웅진 에버스카이(무역)와 웅진투투립(화장품) 대표를 맡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카페 休:휴’ 아산에 5호점 개점

삼성전자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지역공헌 활동인 ‘카페 休:휴’ 아산시 5호점을 6일 개점했다고 9일 밝혔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 오픈한 ‘카페 休:휴’ 아산시 5호점은 평균 나이 70세의 어르신 바리스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바리스타 양성 교육과 실습을 거쳐 바리스타로서의 제 2의 삶을 시작한다.

‘카페 休:휴’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지역공헌 활동이다. 삼성전자는



사진제공 삼성전자

2011년부터 지역사회와 협력해 ‘카페 休:휴’를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 ‘카페 休:휴’는 용인, 화성, 오산, 평택시에 15곳과 아산시에 5곳 등 총 20호점이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년 동안 약 10억 원을 후원했으며, 20개 지점의 ‘카페 休:휴’에는 현재 어르신 바리스타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이주명 교수 두산연강재단 의학논문 학술상

이주명 삼성병원 교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가 2018 두산연강학술상의 학논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연강재단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 교수에게 상금 30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관상동맥질환자에서 3월 관분획혈류비율에 미치는 예후인자로서의 의미’라는 논문을 통해 관상동맥 협착의 혈류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분획혈류비율의 임상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인사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보전과장 김창수 △통상무역협력과장 이규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 장요인 △홍보담당관 김원배
-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법제국장 김장범 <고위공무원 파견> △헌법재판소 김기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위해사법중양조사단장 안영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이수정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TF팀장 오은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실험동물자원과장 김준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정명훈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정승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파견 이성희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계옥
-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기획교육실장 양찬희 △법무지원부장 이구수 △인전지역본부 부장 이용찬
- ◆한국전력 <본부장> △관리본부장 이호평 △상생협력본부장 김성순 △기술혁신본부장 이종환 △영양본부장 권기보 △한전공대설립단장 이현빈 <분사처·실장> △커뮤니케이션실장 최병은 △감사실장 박현규 △기획처장 이경숙 △전력시장처장 조준연 △경영혁신처장 주인환 △재무처장 김갑순 △인사처장

- 이정복 △노무처장 김태암 △안전보안처장 홍성규 △상생협력처장 김선관 △중소벤처지원처장 황광수 △자재처장 신기정 △에너지신사업처장 이준호 △디지털변환처장한상규 △기후변화대응처장 이봉희 △ICT기획처장 한상태 △영업운영처장 박형환 △영업계획처장 인낙승 △전력수급처장 박장용 △배전계획처장 김성만 △배전운영처장 박상서 △스마트미터링실장 이진행 △해외사업관리처장 김정인 △해외신사업처장 서근배 △UAE원전건설처장 이창목 <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조태동 △남서울지역본부장 이병식 △경기지역본부장 김중수 △충북지역본부장 이상룡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병욱

- △전북지역본부장 정은호 △대구지역본부장 권오득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진호 △제주지역본부장 신재섭 △UAE 나와현지법인장 김광수 <특수사업소장> △경제경영연구원장 최영성 △인재개발원장 황우현 △사육건설처장 김양수 △ICT인프라처장 박장범 △설비진단처장 박상호 △전력기반센터장 조원석 <건설본부장> △경인건설본부장 김중화 △남부건설본부장 최규택
- ◆KB생명보험 <신규> △DM영업추진부장 손부현 △시장자산운용부장 서동호 △인사총무부장 조종성 <이동> △채널기획부장 정호선 △채널지원부장 신재영 △신영업추진부장 최근영 △전략자산운용부장 사재훈

부음

- ▲김정순씨 별세, 조성원(명지대 농구부 감독·한국여자농구연맹 재정위원)씨 장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58-5940
- ▲김춘자(전 사야 중·교장)씨 별세, 류대현(학교법인정민학원 이사장)·주현(사야고 교사)씨 모친상, 김호상(전 현대건설 상무)·이수근(전 서울시립대 교수)·곽기영(전 한법재판소 비서관)·안준환(삼페인광고실장)씨 장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58-5922

- ▲윤정복씨 별세, 김기현(전 울산시장)씨 모친상 = 7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51-711-4400
- ▲전창영(법무법인하우 대표변호사)씨 별세, 박금주(서울대 교수)씨 남편상 = 6일,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2072-2011
- ▲정해경씨 별세, 이동태(SK하이닉스 시스템아키텍처사업총괄전무)·창재(전 법무부 차관)·명재(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전 알리안츠생명 사장) 모친상 = 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40

더 이상 스펙, 눈치, 한계는 두렵지 않다 ‘가장 나답게 만드는 6가지’ 질문이 있다면!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짧고 강력한 ‘인생질문’ 들을 수록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내 길을 찾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한 사람,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 앞으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당장 ‘질문’ 을 시작하자!

- 나는 누구인가?
-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 나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
- 제대로 된 삶이란 어떤 삶인가?
- 그러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화제의
신간

가장 나답게 만드는 6가지 질문
6 QUESTIONS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이도권 지음 | 276페이지 | 14,000원



공병호의 독서산책

요리후지 분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북디자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의 일과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작가로서 책이 나올 때마다 북디자인의 창의성에 감탄할 때가 많다. '어떻게 이런 콘셉트와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었을까' 하고 놀랄 때가 있다.

바로 이런 놀라움을 선사한 책 중 하나가 일본의 대표적 북디자인인 요리후지 분페이(斎藤文平)가 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인그라픽스)이다. 저자가 학창시절 데생을 배우기 시작하던 때부터 아트 디렉터로서 활동하는 지금까지의 소소한 일과 일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인생 항해일지'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 책이다. 원래 제목은 '디자인의 일'인데,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은 그동안 얻은 경험을 말하고 생각을 옮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저자는 불안을 에너지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디자인을 포함해 어떤 것을 창조하는 일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커다란 불안을 원동력으로 한다." 어떤 일이 성취되면 불안은 가시지만 그것 또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늘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적으로 불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저자는 불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한다.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시대지만 창조에 관한 저자의 시각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믿음과 다르다. 책에 나오는 두 문장은 창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훈수다. "무언가를 만든다면 왜 그걸 하는지 언어로 쌓아야 마

김성희의 인문경영



CEO리더십연구소장

'회식 절벽'에 선 한술밥 리더십

회식 옹호론자들은 한술밥을 먹으면 '맷힌 것이 풀린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더 꼬인다고 반박하기 일쑤다. 앞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소리 높여 외치면, 뒤에서 "우리가 남이지" 하며 소곤대곤 하는 게 회식 풍속도이기도 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며 회식 논란은 일단 반대론자의 판승으로 결론 난 셈이다.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내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의 기업들은 회식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직원 동의하에 최소한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통 등 일부 업계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도입, 조기 출근조와 마감조를 분리해 다함께 모이는 회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 여파로 오피스 타운 인근의 식당은 썰렁해져 벌써 '회식절벽'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평상시 점심 식사도 자기계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잡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회사나 친구를 뜻하는 company는 com+pany로, 함께 빵을 먹는 데서 유래했다. 우리말로 식구(食口)는 어떤가. 한술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이다. 같이 먹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로 끈끈함으로 이어준다.

내로라하는 리더들치고 '밥상'에서 밥심을 발휘한 일화 한 토막 없는 이가 드물다. 이나모리 가즈오(稲盛和夫) 교세라 명예회장은 공식 회의 후엔 꼭 무릎이 닿을 정도로 좁은 방에서 친목경영을 위한 회식을 강조했다. 직접 일어나 돌면서 술을 따라주고 대상에 따라 화제를 바꿔 대화했다. 메뉴는 전골요리만을 고집했다. 한 냄비를 둘러싸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애개와 무릎을 부딪치며 삶과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이 깊어진다는 생각에서다.

YS가 정적(政敵)의 입장을 바꾸게 만든 결정적 장면도 '식사 정치'였다. 청와대로 불러 따뜻한 밥 한 끼 내놓고 정치 얘기는 일절 없이 "이거 자네가 좋아하는 거지"라며 반찬을 일일이 집어 수저 위에 올려주더라는 것. 대통령의 이런 정성에 그는 결국 YS의

편이 되었다.

실제로 밥상에서 발휘되는 밥심은 크다. 케빈 니빈 미국 코넬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그룹의 업무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을 가족처럼 느끼게 되면서 밥상 공동체 의식이 팀의 구성적 역할을 해준다. 연구진이 중소도시의 소방서 13곳을 방문해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사를 함께 자주 하는 팀일수록 협력적이었다. 두 배나 높은 경우도 있었다.

최근의 회식절벽 사태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가정의 밥상머리 훈화가 사라진 데 이어 조직에서도 밥심 리더십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 같아서다. 돌이켜보면 가정 내 소통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식구들이 밥상머리를 같이하지 못하면서부터다. 회식절벽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까 걱정된다. 얼굴을 마주하는 한술밥 밥상도, 밥심 리더십도 사라질 앞으로의 세대에서 식구(食口), 회사(company)를 대체할 새 단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일에 대한 영감(靈感)을 얻는 방법

는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나만의 작은 공간에서 긴장을 풀고 상상의 나래를 퍼뜨려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디자인을 시작하다 △디자인의 작업 △아이디어에서 형태로 △북 디자인에 대해 △지속의 기술 등 소주제들이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을 인도해 줄 것이다. 책의 어디선가 공감할 수 있는,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문장을 건지는 것만으로도 황재한 기분이 든다. 창의성에 관한 글에서 저자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갑자기 생각해야 할 것과 상관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다"고 말한다. 그렇게 일단 떠오른 아이디어는 줄을 잇게 되는데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 아이디어가 정리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서로 연관이 없던 것들이 연결되어 마치 연상게임처럼 화제가 논리가 사라지기도 한다."

책의 말미에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격변의 시대에 안정은 사라지고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를 어떻게

노크리(物作·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물건 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다.", "디자인이 감각만으로 디자인하는 시대는 곧 끝난다." 이 같은 주장들은 "나는 독서하며 일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는 문장과 만나게 된다.

누구에게나 일과 관련된 슬럼프가 찾아오지만 창조하는 사람에게 는 더욱더 심각한 일일 것이다.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슬럼프를 저자는 예측 불가능한 랜덤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안정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계속하면서 발상을 기다린다"는 지혜는 생활인으로서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면 타당하지만 창조를 재촉하는 나름의 방법을 몇 가지 갖고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알쏭달쏭 말쭙말쭙

기무사(機務司)

기무사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 국 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

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이라고 혼동하는데, 이때의 '틀'은 재봉틀, 베를 등에 사용하는 기계라는 의미의 '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계기나 조건'을 의미하는 '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가 되는 중요한 일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고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때도 있다. 이로부터 '機'는 '기밀(機密)', '기회(機會)'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바로 대한민국 군대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일을 기밀을 유지하면서 가장 적절한 기회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군부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은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司令部)'를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군 수사 정보기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948년 5월 27일 육군정보국 정보처 내에 설립된 특별조사과가 모체가 되어 1948년 11월에는 특별조사대, 1949년 10월에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로 개편하였고, 1950년 10월에는 육군본부 직할 특수부대로 독립하였으며 1960년 7월에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하였다. 1968년 9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바꿨다가,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이런 機務司가 군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 여론을 받아들여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조현병 병력자 흉기에 찔려 경찰관 1명 사망 "어떤 이유든 강력 처벌"



대낮 시골 주택가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진압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낮 12시 49분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렸다. 당시 영양출초소 소속 경찰관 2명은 주택가에서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있던 A(42) 씨를 진압하기 위해 주택에 들어가 대화를 시도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 대화하던 중 A 씨

가 들인 뒷마당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명과 A 씨,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B 경위가 목 부위를 다쳐 헬기로 안동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함께 있던 C 경위도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그 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객관적 병력 자료가 있는지 확인 중이

다. 네티즌은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kyun****'은 "경찰이 테이저건이라도 쏘면 과잉 방어네 뭐네 말이 많고, 막상 범인에게 당해서 상해라도 입으면 무능력하다고 욕하고, 정말 답답하다"라고 했다. 아이디 'spik****'는 "이유 불문하고 흉기를 들었다면 최소한 테이저건이나 전자봉으로 제압해야 한다. 난동을 심하게 부린다면 실탄 발사도 허용해야 한다. 경찰도 흉기 소지자에겐 단호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rout****'는 "사건만 나면 조현병을 들먹이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조현병 환자가 폭력적으로 인식이 굳어가는 듯"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재영 기자 ijy0403@

아이타올(주)

Made in Korea

www.itowe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IBK동반자금융

ccm
소액자대출지원
신용보증기금

반려견 공놀이 기계 (주)볼레디

색칠놀이 앱 (주)에스튜디오

가구매칭 앱 (주)아헤라이프스타일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공하는 친구처럼!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는 '반려견공놀이기계'를,
미니홈피에 재능이 있던 친구는 '가구매칭앱'을, 그림에 끼가 있던 친구는 '색칠놀이앱'을 만들었습니다.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되도록 IBK동반자금융이 함께 뛰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도만 올라도~” 사투리 알아듣고 “알아서 시원하게” 스스로 학습하고

삼성 vs LG 에어컨 ‘스마트 냉전’

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에어컨 시장 주도권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똑똑한 에어컨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아울러 부가 기능으로 제습, 가습, 공기청정 등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또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에너지 효율도 높아져 유지·관리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 모델이 고성능 실외기 1대로 스탠드형 무풍에어컨 1대와 벽걸이형 무풍에어컨 2대까지 연결해 동시 냉방 가능한 ‘무풍에어컨 3멀티’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휘센 에어컨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전기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LG 휘센 절전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LG 휘센 쌍큐 에어컨.

삼성
무풍, 자연어 음성인식을 최고 수준 ‘AI 쾌적 모드’로 최적의 온도 제공 ‘무풍 모드’ 최대 80% 전기료 절감

LG
쌍큐, 소비자 에어컨 사용 패턴 분석 냉방·무풍·제습·청정 알아서 척척 듀얼 컴프레서로 하루 전기료 500원

◇ 삼성 무풍 vs LG 휘센 쌍큐, 누가 더 똑똑한가 = “올해 출시된 무풍에어컨은 4개 지역의 사투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정도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서형준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 생활가전사업부 에어컨 개발 담당(마스터)은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열린 ‘삼성전자 출입기자 포럼’에서 “무풍 에어컨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사용자 사투리까지 파악하는 등 자연어 기반 음성 인식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삼성 무풍에어컨은 “8시에 잤다가 10시에 다시 쉰 쥐”와 같은 음성명령도 알아듣고 작동한다.

이래 50년간 공조사업 역량을 축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에어컨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며 인공지능 에어컨 시대를 열었고, 올해 출시하는 모든 스탠드형 모델에는 보다 강력해진 ‘인공지능 스마트케어’를 적용했다. LG전자는 인공지능 스마트케어가 에어컨에 단편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인공지능 에어컨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휘센 쌍큐 에어컨은 고객의 생활 환경과 사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고객을 더 잘 이해한다”며 “인공지능을 접목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에어컨 시장의 1등 브랜드 지위를 굳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무풍에어컨 슬림’은 직바람 없는 ‘무풍 냉방’ 기술에 심플한 디자인을 접목했다. 바람 세기·설정 온도 등 사용자가 선호하는 사용 패턴과 온도·습도 등 실내의 환경 정보를 학습해 최적의 운전 모드로 스스로 전환하는 ‘인공지능 쾌적 모드’가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쾌적 모드를 켜 두면 비교적 기온이 높지 않은 아침 시간대에는 ‘무풍 냉방’으로 운전하다가 가장 더운 한낮에는 ‘터보냉방’ 모드로, 수면 시간에는 ‘무풍 열대야 쾌면’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이다. ‘무풍 열대야 쾌면’ 모드는 소비자의 수면 시간대에 맞춰 단계별 최적화된 온도로 작동해 편안한 숙면을 도와 준다.

◇ 에너지 효율도 우수 =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슬림은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며 ‘무풍 냉방’ 모드일 때는 일반 모드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 장마철에는 하루 최대100리터까지 대용량 강력 제습이 가능하며 최저는 없지만 습한 봄이나 초여름 날씨에 유용한 ‘무풍 제습’ 기능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민 전력 수요 자원 거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사용자에게 돌려 줌으로써 대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이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8월까지 약 3만 가구를 모집하고 전력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한 무풍 에어컨과 AI·IoT 기반 제어 기술로 전기 요금을 줄여 주는 ‘스마트에너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삼성전자 ‘스마트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을 통해 에어컨 운전 상태·전기 사용량·에너지 절감 방법·인센티브 내역 등 에어컨 관련 상세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인 실린더를 2개로 한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했다. 한 번에 보다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신제품은 일반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한 에어컨보다 에너지 효율이 15%가량 높고, 정속형 컴프레서 모델과 비교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63%까지 줄어든다. 한 달 전력소비량이 300kWh인 가정에서 휘센 쌍큐 에어컨(모델명: FQ17D8 DWBN)을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 늘어나는 한 달 전기료는 1만5160원이다. 하루 전기료가 500원에 불과하다. 휘센 에어컨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전기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LG 휘센 절전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에어컨을 출시한 후, 올해 한층 더 강화된 인공지능으로 공간·환경·사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LG 휘센 쌍큐 에어컨을 선보였다. LG전자는 1968년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에어컨을 출시한

송영록 기자 syr@

퀴퀴한 냄새는 가라... ‘상쾌한 바람’ 오래 즐기려면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지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오랜만에 전원을 켜 에어컨에서 쿨쿨한 바람이 냄새가 한가득 몰려온다. 상쾌함을 맛보고 싶었지만, 다시 전원을 끈 채 땀을 뺄 뻔한 찰흙이 흘러내리며 부러부러 에어컨 필터를 청소한다. 에어컨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가동할 경우 냄새뿐만 아니라 각종 균이 퍼지면서 건강에도 좋지 않다.

냉방 효율도 높이고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어컨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먼저, 에어컨 청소를 하기 전에 감전 등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일반적인 에어컨은 전면의 커버를 열면 반투명한 망으로 이뤄진 필터가 나온다. 이 필터를 떼어낸 뒤 솔이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해 먼지를 털어낸다. 이때 필터 청소에는 힘 조절이 필요하다. 필터는 약한 소재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있다.

먼지를 털어낸 필터는 주방세제나 울삼푸와 같은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세척한다. 여기에 에탄올과 베이킹소다를 물과 같은 비율로 타 주면 더욱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건강 위해 주기적인 필터 청소는 필수 중성세제로 닦고 그늘에 충분히 건조 냉방 가동 후 일정시간 ‘송풍’ 켜 두면 내부 물기 말라 곰팡이 증식 억제 효과

필터 손상을 막기 위해 비벼서 세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청소한 필터는 12시간 이상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필터를 강렬한 햇빛으로 말리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에어컨 냉각기도 청소해 주면 좋다. 냉각기도 필터 못지않은 많은 곰팡이와 먼지가 쌓여 있

다. 중성세제를 탄 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적당히 뿌려 주면 된다. 이 물은 연결된 호스를 타고 배출된다.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를 물걸레로 닦고, 에어컨 실내기의 바람 흡입구에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막아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잘 마른 필터는 에어컨에 다시 장착하고 송풍 기능을 켜준다. 이때 젖은 에어컨 내부가 건조된다. 평소에도 에어컨 사용 후 일정 시간 송풍을 켜 두면 곰팡이 증식을 막을 수 있다. 오랜만에 에어컨을 쓸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되도록 한 뒤 5분 이상 가장 강한 냉풍 모드로 에어컨을 틀어 둔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에어컨을 처음 가동할 때는 안에 쌓여 있던 많은 곰팡이와 먼지가 배출될 수 있다.

참고로 에어컨의 전원은 반드시 벽면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 에어컨은 소비전력이 커 멀티탭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과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실내기가 벽, 가구 사이에 일정 공간이 확보돼 열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실외기에 낙엽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이 끼어 있다면 제거해 줘야 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POWERED BY HERITAGE

RICORDO COLLECTION - SKELETON AUTOMATIC MOVEMENT - SCREW CASE BACK AND CROW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MASERATI

투싼 페이스리프트

이퀴녹스

더 뉴 G-클래스

준중형 새바람 vs 북미 절대강자 vs 벤츠의 자존심



한국GM
쉐보레 이퀴녹스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클래스

현대차
투싼 페이스리프트

하반기 SUV 신차 삼국지

하반기 국내 SUV시장에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는 '스테디셀러' 투싼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예고했다. 한국지엠은 중형 SUV 이퀴녹스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메르세데스-벤츠도 하반기 더 뉴 G-클래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자동차업체의 경쟁은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대차, 하반기 키워드는 '투싼 페이스리프트' = 연초 신형 싼타페를 출시한 현대차는 투싼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를 통해 준중형 SUV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인공은 3월 '뉴욕 국제 오토쇼(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투싼 페이스리프트. 당시 브라이언 스미스 현대차 미국 법인(HMA)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앞서 출시한 코나에 이어 싼타페, 투싼 등 SUV 새 모델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SUV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판매 및 점유율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투싼 페이스리프트'

깊이감 더한 새 캐스캐이딩 전면 그릴
전방 충돌·차로 이탈 방지 기본 장착

한국GM 쉐보레 '이퀴녹스'

쉐보레 SUV 라인업 글로벌 대표 주자
3세대 모델 작년 북미서 29만대 판매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클래스'

운전자 취향 따라 최대 5가지 주행모드
'G-모드' 오프로드 핸들링 성능 개선

◇한국지엠, '북미의 강자' 이퀴녹스 국내 판매 개시 = 한국지엠은 지난달 2018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중형 SUV 이퀴녹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했다.

카하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SUV에 감점을 가진 글로벌 브랜드의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쉐보레 SUV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글로벌 신차 이퀴녹스는 한국 고객들이 SUV에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퀴녹스는 쉐보레 SUV 라인업의 글로벌 대표다. 회사 관계자는 "브랜드의 유서 깊은 SUV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을 거듭해 온 차종"이라고 말했다. 2004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 2009년 2세대 모델이 선보였으며, 새로 출시된 3세대 신모델은 미국에서 지난해 연간 29만 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풀사이즈 픽업 트럭 실버라도(Silverado)에 이어 북미 최대 판매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퀴녹스의 가격은 △LS 2987만 원 △LT 3451만 원 △스프리미어 3892만 원이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결합한 전자식AWD 시스템은 200만 원이 추가된다.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클래스 하반기 국내 출시 =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하반기 더 뉴 G-클래스를 국내에 출시한다. G-클래스는 1979년 출시 이래 30만 대 이상이 판매돼 메르세데스-벤츠 SUV라인업의 '자존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G-클래스는 지난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2만2000대 이상이 판매됐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더 뉴 G-클래스는 새로운 서스펜션, G-모드(G-Mode)가 추가된 다이내믹 셀렉트(DYNAMIC SELECT) 드라이빙 모드, 3개의 100% 디퍼렌셜락(Differential Lock) 등을 통해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향상된 승차감과 민첩성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더 뉴 G-클래스에 탑재된 다이내믹 셀렉트는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G-모드를 포함해 최대 5가지의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버튼 터치로 원하는 주행 모드 선택 시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스티어링,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각 주행모드에 맞게 변경된다.

특히 더 뉴 G-클래스에는 G-모드(G-Mode)가 새롭게 추가돼 오프로드 핸들링 성능이 개선됐다. 3개의 디퍼렌셜락 중 하나가 활성화되거나 저단 오프로드 기어 감속이 적용되면, 주행 모드가 G-모드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더 뉴 G-클래스는 최적화된 컨트롤과 최상의 오프로드 역량을 발휘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가정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최대 50%까지 채우기

다양한 투자 기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든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채테크 기회를! 국가도지원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신용회복지원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타보니 볼보코리아 '더 뉴 XC40'

크기는 콤팩트, 성능은 준중형급

고속주행서도 부드럽게 치고 나가
긴급제동 등 반자율주행도 합격점

'콤팩트' 볼보코리아가 더 뉴 XC40을 국내에 선보이면서 내세운 수식어다. 통상 국내에서 콤팩트 SUV는 현대차 코나, 기아차 스톤이, 쌍용차 티볼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XC40과 이들을 같은 궤에 올릴 수 없다. 그만큼 크고 우람하며 존재감이 뚜렷하다. 콤팩트라는 수식어를 내세웠음에도 라이벌은 준중형 SUV들이다.

볼보 SUV 시리즈의 막내 XC40을 타고 경기도 남양주 인근 국도와 고속도로를 약 100km 왕복해 봤다. 주행거리가 긴 만큼 운전자는 피로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진다. 반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시켜 줄 관건이다.

XC40은 '스웨디시 미니멀리스트'다. 그만큼 디자인에서 군더더기는 빼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외부 디자인은 과장과 화려함은 사라진 대신 단순한 라인을 살려 깔끔함을 강조했다. 오히려 말끔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내장 디자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센터페시아다. 센터페시아 위쪽에 있는 모니터는 큼직하게 시인성이 뛰어났다. 다만,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길을 잃기 일쑤여서 다소 아쉬웠다.

시트는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오픈지색 느낌의 '펠트'를 썼다. 이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고속 주행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

됐다.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를 낼 때 끊임 없이 부드럽게 치고 나갔다. 이는 차량에 적용된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XC40은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토크 30kg.m의 힘을 낸다.

반자율주행 기능도 합격점을 주기 충분하다. 100km 거리를 주행하면서 차선이탈방지 시스템이 수시로 작동해 스티어링 휠 조작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갑자기 트럭이 치고 나온 순간에는 긴급제동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경고등·경고음으로 운전자를 보호했다.

연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볼보코리아가 밝힌 XC40의 복합연비는 10.3km/ℓ이다. 운행 후 계기판에 찍힌 연비를 측정하자 그와 비슷한 수준인 10.5km/ℓ였다.

볼보코리아가 이번에 선보인 XC40은 국내에서 △모멘텀 △R-디자인 △인스크립션 등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된다.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4620만~5080만 원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高高 치솟는 국제유가...정유 석유화학

2분기 실적...엇갈린 전망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엇갈린 표정이다. 두 업계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다. 정유업계는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해 이를 정제해 제품을 만들고, 석유화학은 정제된 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로 화학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두 산업의 실적에 영향을 끼친다.

◇ '원유 노출도'가 높은 정유업계- 고유가로 호실적 '기대' =정유업계는 실물 시장을 통해 해외로부터 원유를 도입한다. 이를 정제해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 제품들을 생산한다. 국내 정유사들은 대부분 중동 시장으로부터 두바이유를 위주로 구매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은 통상 3~4주째 재고품의 보유 기간은 약 1개월 내외다. 즉, 원유를 수송해오는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해 처음 원유를 사들인 과정과 판매하거나 재고로 쌓아둘 때의 평가 가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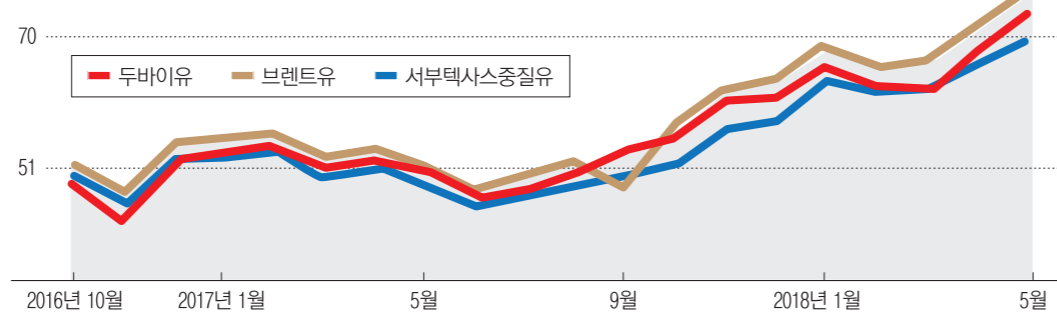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두바이유를 비롯한 브렌트유, WTI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넬에 따르면 두바이유의 3, 4, 5월 유가는 각각 배럴당 62.74달러, 68.27달러, 74.1달러로 매달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66.72달러→71.76달러→77.01달러)와 WTI(62.77달러→66.33달러→69.98달러)도 같은 기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재고평가이익으로 인해 작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에스오일(S-OIL)은 작년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FN가이드가 제시한 두 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SK이노베이션 8771억 원, 에스오일 4184억 원이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국제유가의 등락으로 재고평가손익이 결정되지만, 결정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제마진'이기 때문이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수송비 등 운송비용과 원자재 비용을 뺀 이익이다.

정제마진은 4, 5월 높은 수치를 보이다 6월 중순을 넘기면서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4월 정제마진이 가장 높았던 때는 4월 6일로 8.1달러를 기록했다. 5월엔 최고 8.2달러까지 올랐다가

국제 유가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



정유업계 '정제마진' 본격 반등 전망 영업이익 작년보다 큰 폭 상승 기대

석유화학업계, 원재료 나프타값 올라 전지 등 고부가 사업으로 타격 최소화

6월 18일 6.5 달러대로 급하강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 평균 정제마진은 5.6달러였다.

그러나 정제마진 하락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유진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를 앞두고 정제마진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미국의 설비 가동률과 중국 석유제품 생산 및 수출 감소로 공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원재료값 올라 서글픈 석유화학업계 =반면 원유 베이스인 나프타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업계에 유가 상승은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만큼 정유업계가 나프타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해 석유화학 업계의 원재료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프타 가격은 4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4월 6일 1톤당 586달러를 기록한 나프타 가격은 4월 13일 600달러대를 돌파했으며 5월 18일 1톤당 69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단계적으로 정유·화학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업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1분기 수익성 감소의 요인이 2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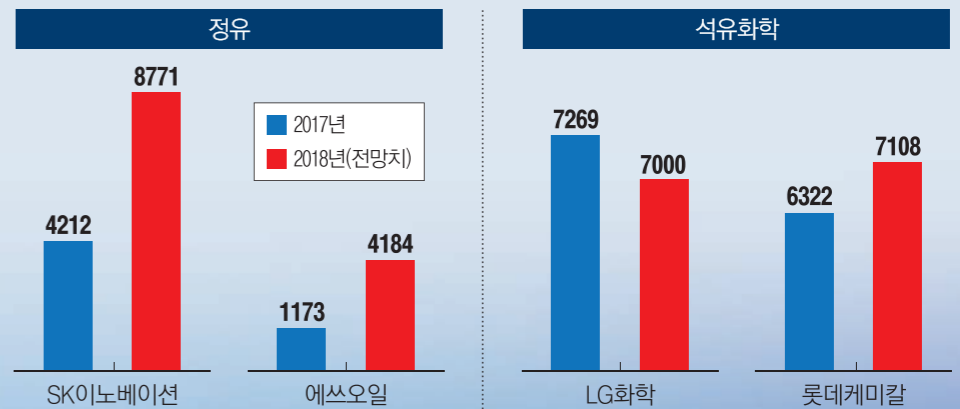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최근 고부가가치로 전

향하거나 석유화학 외에도 전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실적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기초소재 외에도 전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도 올해 1월 고부가 화학 설비 증설에 500억 원을 투자해 울산 고순도이소프탈산(PIA) 생산설비 증설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석유화학 업계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주요 상품인 BPA(비스페놀A) 가격 상승으로 2개 분기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호적인 환율이 조성된 것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2.8% 상승한 13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정유·석유화학 2분기 영업이익 추이
(단위: 억 원) *출처: FN가이드



OPEC 감산 억제 실현 가능성 "글썄"

증산 결정에도 국제유가 상승세 꺾이지 않아

국내 정유사 "재고평가의 늘지만 정유제품 대체 리스크도 존재"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 증산까지 압박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유가가 안정세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OPEC 회의에서 산유국들은 18개월 동안 이어졌던 감산 기조를 버렸다. 이날 회의에서 그들은 기존의 감산정책에 벗어나 '완만하게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려곡절도 많았다. 회의를 얼마 앞두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빅2' 산유국은 감산을 끝내고 증산으로 돌아서자 주도한 반면 이란, 베네수엘라, 이라크 등은 증산에 정면 반발했다.

이란 측 OPEC대표인 호세인 카잠푸르 아르데빌리는 지난달 17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증산을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하루 100만 배럴 증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OPEC 회의 이후 유가 흐름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증산 협정이 있기 전인 지난달 21일까지만 해도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됐었다. 하지만 6월 기준으로 약 20% 오른 72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중 하나인 두바이유도 현재 배럴당 약 7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유타주 석유 시추 모습. 아네스/로이터연합뉴스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기존 OPEC 정책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번 결정이 과거 과도하게 진행해왔던 감산을 억제하는 선에 그쳤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간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는 합의문의 실현 가능성을 폄하했다. 실제로 100만 배럴을 증설할 수 있다는 국가는 사우디, 카타르, UAE 등 3~4개 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인 원인으로 인해 산유국들의 총증산량은 600만~700만 배럴에 불과하다"며 "이런 원인으로 인해 유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정유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업계의 재고평가 이익은 더욱 늘어나지만 정유 제품 수요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업계 상황과 관련돼 국제유가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노란우산공제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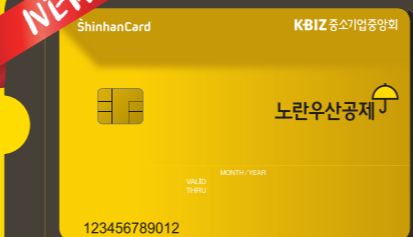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무료 자문, 휴양시설, 제휴카드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EW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 11종의 사업성 경비 최대 5% 포인트 적립
- 병원·약국·대중교통 5% 할인
- 전 주유소 리더당 50원 할인
- 핸드폰 구매 시 요금할인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9988.or.kr) 복지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계용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집 밖으로 나간 'AI 스피커' ... 더 똑똑해졌다



'B2B' 영역 진출한 AI 서비스

SK텔레콤이 국내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를 처음으로 공개하던 2016년 말 AI 스피커의 기능은 단순했다. 음악 재생, 날씨 검색 등과 같은 단순한 질문만 가능했다.

불과 1년 사이 AI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IT 업체들이 뛰어들기 시작했고, KT '기가지니', 네이버 '할로바', 카카오 '카카오미니' 등이 잇따라 출시됐다. AI 서비스는 홈 IoT와 연동, 가전 제품을 음성으로 켜고 끄는 가정 내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일반 가정에 판매하는 B2C 사업이 주류가 됐다.

국내 AI 선도 업체로 꼽히는 SK텔레콤과 KT는 기존 B2C 사업을 넘어 B2B로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AI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AI 스피커 '누구'를 CU 편의점에 배치, 매장 근무자의 '도우미'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 안에서 개인 고객을 상대하던 누구를 편의점 등 기업 서비스(B2B)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4일부터 BGF리테일의 CU 전국 100개 매장에 '누구'를 도입, 매장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우선 100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CU 매장에 누구를 투입할 계획이다.

누구는 편의점 CU 계산대 옆에 배치돼 분사 공지사항부터 조작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근무자들이 묻는 매장 운영 관련 200여 가지의 질문에 대답한다. 지금까지 매장 근무자는 편의점 운영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분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컴퓨터에서 찾아보아야 했다. 이제부터는 근무자가 '누구'에게 질문하고 '누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찾아 답해 준다.

이와 함께 매장 직원은 누구를 통해 하루에도 3번 이상 편의점을 찾아오는 냉장·냉동·주류 물류 차



SKT '누구'

100여개 CU 편의점 계산대 옆 배치
물류 차량 위치·AS 전화번호 안내 등
매장 근무자에 200여가지 질문 답변

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락 재고가 떨어진 걸 확인한 매장 근무자가 "아리아, CU 배송 차량 위치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현재 저운 배송 차량은 2개 점포 전에 있으며, 도착 예정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물류센터 및 편의점 기기·전자제품·내부시설 A/S 전화번호도 가르쳐 준다. 이번 CU편의점 AI 서비스는 SK텔레콤이 개발 중인 오픈 플랫폼 베타 버전의 '1호' 서비스다. SK텔레콤이 준비 중인 오픈 플랫폼은 개발 언어가 아니라 GUI(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이뤄져 코딩을 모르는 비개발자도 서비스를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CU 측이 손쉽게 서비스를 자체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호 SK텔레콤 서비스플랫폼사업부장은 "이번 '누구' 서비스의 편의점 CU 적용은 인공지능의 영역을 B2B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텔레콤은 조만간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GUI 기반의 오픈



KT '기가지니'

특급호텔 협력 AI 컨시어지로 변신
객실 안내·다국어서비스 등 제공
연말까지 자동차 제어 서비스도 출시

플랫폼 공개를 통해 인공지능 대중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올 3분기까지 누구를 비스타 워커히 서울호텔 객실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비스타 워커히 서울호텔에서는 조명·커튼·온도 등을 음성으로 제어하게 되며 고객이 입실할 때는 웰컴 음악으로 손님맞이를 한다. SK텔레콤은 추가 테스트를 거친 후 하반기 중 개발용 오픈 플랫폼을 공개한다.

통신 업계 라이벌 KT도 자사 AI 서비스 '기가지니'의 활용 대상을 가정뿐만 아니라 자동차, 호텔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가지니를 출시한 이후 '스마트 홈' 토탈 서비스와 연동해 금융, 흡소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KT는 앞으로 자동차(키넥티드카), 호텔 등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AI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AI 동화 서비스 '소리동화', '오디오북'을 통해 키즈·교육 사업을 강화했다면 앞으로 B2B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 '기가지니2'. 사진제공 KT

KT는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집이나 사무실의 기가지니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키넥티드카' 서비스를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키넥티드카는 집에서 음성으로 차량 상태 확인은 물론 시동 걸기, 히터-에어컨 켜기, 도어락 및 비상등 제어 가능 서비스다. 조만간 자동차에서 가정의 전등을 켜고 끄는 등 홈 IoT 기기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KT는 지난해 국내 특급호텔과 제휴를 맺고 AI를 바탕으로 호텔안내, 객실서비스, IoT제어, 다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I컨시어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호텔 서비스는 조명, 냉난방 제어뿐 아니라 알람, 교통, 날씨 등 생활비서 기능까지 포함된다. 목소리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호텔용 기가지니 전용단말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한글과 영어를 지원하며 앞으로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AI컨시어지를 내세워 호텔 등 숙박 업종에 AI 수요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김범준 기자 nova@

SKT '누구'. 사진제공 SKT

인공지능(AI) 스피커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협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체 인증이나 터치 방식이 아닌 음성을 통해서 명령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구별이 쉽지 않아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주인이 모르는 사이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마존의 '에코'는 '알렉사'를 호출 명령어로 인식하고 작동한다.

해외에서 에코를 사용하던 한 부부가 대화 중 '알렉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에코는 이를 호출로 인식하고 명령을 받을 준비를 했다. 부부의 대화 도중 에코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요?"라고 물었고, 대화에 언급된 이름으로 메시

지를 보냈다. 의도된 전송이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화를 잘못 알아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호출 명령어를 녹음해 탈취한 뒤 인공지능 스피커로 도청하는 등 '음성 하이재킹'에 대한 위험성이 큰 것이다. 아마존 측은 이 사고에 대해 "우연적으로 드물게 일어난 사고"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음성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해킹하는 실험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 UC버클리대 연구진은 고주파대 음역을 활용해 해킹에 성공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를 활용해 인공지능 스피커에 명령을 내려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바로 옆에 있더라도 메시지 전송 등 해킹 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호출 명령어가 스피커를 작동시키는 일종의 '스위치'인 셈이다. 또 음성명령 정보는 각 업체에서 정한 일정 기간 저장돼 인공지능 스피커 학습 등에 사용된다. 네이버와 SK텔레콤, KT 등은 24개월간 보관하며 카카오는 회원이 탈퇴할 때까지 보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해 특정 인물에만 반응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카카오미니에 목소리를 등록해 해당 음성에만 반응하는 '보이스프로필'을 올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보이스프로필이 적용되면 인공지능 스피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과거 모니터에 달려 있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사생활이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만큼 인공지능 스피커 보안과 관련한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음성인식, 보안위협 취약

카카오, 하반기부터 특정 인물 음성에만 반응하는 '보이스프로필' 기술 적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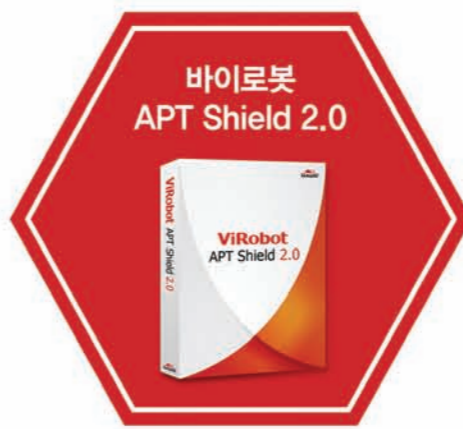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마트에 없는 물
TV광고 없는 정수기
영업사원 없는 회사

“물 소문만으로 33년”

오직, 물

한우물

물맛부터 다른 이중전기분해방식의 전해 약알칼리수 - 한우물



최첨단 전자식 냉온 정수기
▶HAN-CH3000S

특성 냉수, 온수 / 색상 블랙, 화이트
| 정수량 4,000L의 뛰어난 필터성능
| 터치 한 번으로 내맘대로 물량 조절
| 세정기능을 통한 최상의 전기분해 유지



따뜻한 물도 바로 직수형 온정수기
▶HAN-EP5100

특성 정수, 온수, 미온수 / 색상 그레이, 레드
| 3단계 온수 기능으로 용도에 맞게
|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



간편하게 바로 직수형 정수기
▶HAN-EP5000

특성 정수 / 색상 레드, 스카이블루
| 작고 아담한 사이즈에 성능은 그대로
|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도 슬림
| 스마트한 자동세정 기능

건강한 물, 한우물 「나처럼」 무료 시음 이벤트!

무료 시음을 신청하시면 건강한 약알칼리 음료 나처럼 500ml 4병을 택배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고객센터 1588-4804로 연락주세요.



주력사업 실적개선 기대 '삼화전기' 31% '송원산업'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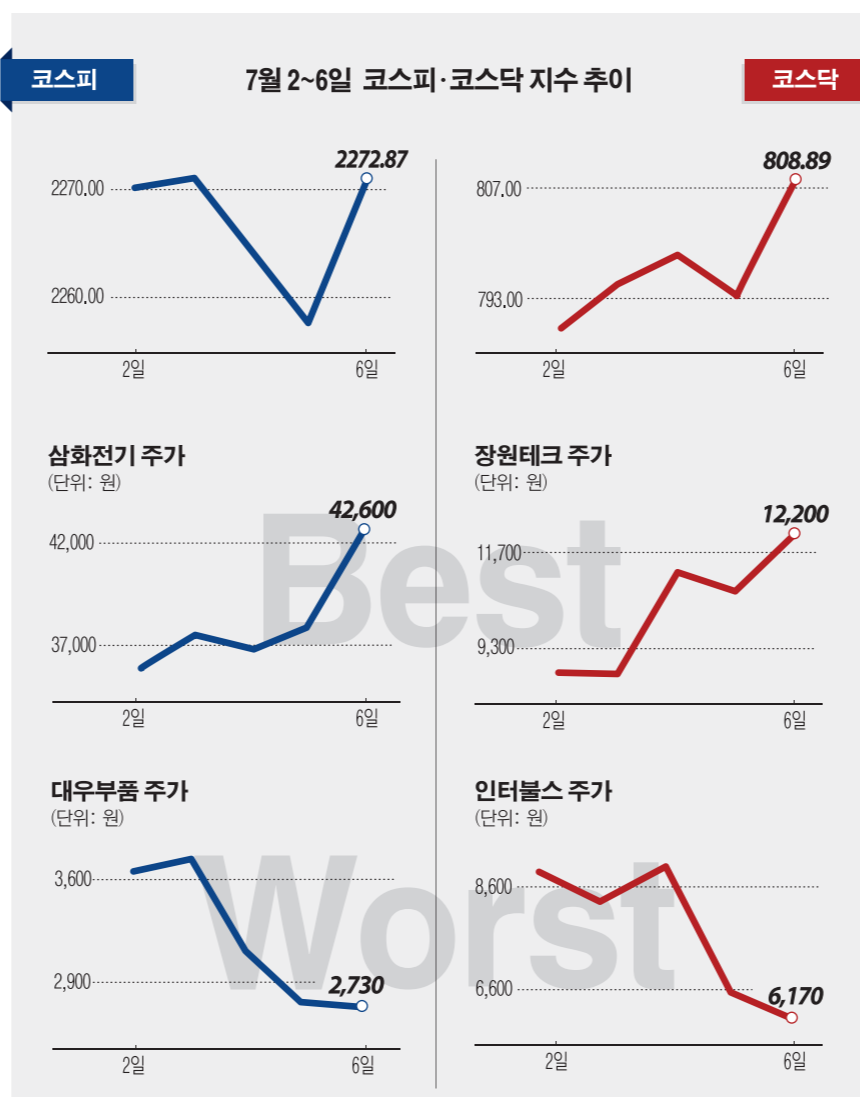
지난주(7월 2~6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3.26포인트(2.29%) 내린 2272.87로 장을 마감했다. 마·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2일 하루에만 전 거래일 대비 2.35% 폭락했던 코스피지수는 6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안을 선택하며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95억 원어치와 229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홀로 2541억 원 순매수했다.

베스트&워스트 7월 2~6일

지난주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9.33포인트(-1.14%) 내린 808.89에 거래를 마쳤다. 마·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지수와 동반 하락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종가 기준 800포인트선을 내렸다. 하지만 6일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제소를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 전 거래일 대비 1.8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2억 원어치와 1026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856억 원 순매도했다.

◇삼화전기, 전해콘덴서 공급 확대... 31%↑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삼화전기로 전주 대비 31.28% 올랐다. 삼화전기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전해콘덴서를 생산·납품하는 업체다. 공기정정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생활가전의 하이엔드(high-end) 제품군 판매 증가로 기존보다 높은 평균판매단가(ASP)의 전해콘덴서 공급이 확대되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홍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자동차, ESS(에너지저장장치),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의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일제약은 베트남 투자 기대감에 전주 대비 27.91% 상승했다. 삼일제약은

세원셀론텍은 전주 대비 9.62% 올랐다. 지난달 29일 세원셀론텍은 일본 올림푸사와의 현지 합작법인인 올림푸스 RMS로부터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약품기기종합기구(RMDA)가 자기유래 연골세포 치료제인 '콘드론(Chondron)'의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림푸스RMS는 올해 하반기 의약품 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과 임상환자 모집을 진행한 후, 시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임상 3상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샘표(24.62%), 국제약품(16.80%), 웰바이오텍(9.30%), 현대해상(9.20%), 한성기업(9.04%), 제



◇장원테크, 남북경협 마그네슘·알루미늄 소재 가공 부각 32%↑ = 장원테크는 남북경협 기대감에 자원 가공기술이 주목 받으며 전주 대비 31.89% 올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원테크는 마그네슘 합금과 알루미늄 합금 등 경량 금속 소재를 사용해 휴대용 IT기기에 이용되는 외장 및 내장재, 조립품을 생산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용 케이스 등 의료기 부품과 자동차 헤드램프용 히트 싱크 등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알에프제마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능을 내장한 마이크로폰(ECM)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주 대비 31.44% 올랐다. 이번에 개발된 ECM칩은

위해 강문현 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총 9억9999만9174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페스신소재는 운영자금(100억 원) 및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400억 원) 조달을 위해 푸딩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제2회 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외에도 제너셀(25.97%), 디어엔티(24.04%), 제나스(22.46%), 모바일어플라이언스(21.07%), 피델릭스(19.51%)가 강세를 보였다. ◇인터볼스, 후보자 전원 사퇴로 이사 미선임 34%↓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전주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34.36% 하락한 인터볼스다. 인터볼스는 5일 임시주총회에서 사외이

베트남 생산공장 설립 밝힌 '삼일제약' 27.9% 급등 연골세포치료제 임상 3상 계획 '세원셀론텍' 9.6%↑ 남북경협株 차익실현 움직임 '대호에이엘' 16.6% 폭

최근 진행된 163억 원 규모 유상증자 자금 중 일부인 146억5000만 원을 베트남 안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2021년 말까지 공식 허가를 받은 후 가동될 예정이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나머지 자금(16억5000만 원)은 이스라엘 제약사인 갈메드(Galmed)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아람콜(Aramchol)' 기술 도입에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제약은 최근 공시를 통해 '갈메드가 진행한 임상 2b상 시험에서 아람콜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의 간 섬유화 악화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력제품인 폴리머 안정제의 판매가격에 대해 15% 인상안을 발표한 송원산업은 전주 대비 19.65% 올랐다.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북미 등 지역에서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연마(8.93%) 등이 전주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대우부품, 중국 소주법인 지분 50% 동공실업에 양도...23%↓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는 대우부품이 전주 대비 23.4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대우부품은 100% 자회사인 중국 소주법인(Suzhou A&T Technology Co., Ltd)의 지분 50%를 중국 동풍실업유한공사에 양도해 합작법인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동풍자동차그룹을 통한 중국 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부품 공급이 소주법인 지분 양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철도주로 분류되며 급등했던 대호에이엘은 차익 실현에 전주 대비 16.64% 하락했다. 산림협력기대감에 급등했던 조립주 이견사업과 한솔홀테크도 각각 전주보다 17.39%, 17.28% 내렸다. 이외에도 TBH글로벌(-18.52%), 영화속(17.70%), 이화(17.70%), 세우글로벌(-14.41%)가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6월 29일	7월 6일	증감률
삼화전기	282	42,600	+31.28
삼일제약	179	27,500	+27.91
샘표	107	37,200	+24.62
세원산업	658	27,400	+19.65
국제약품	94	5,180	+16.80
세원셀론텍	320	5,240	+9.62
웰바이오텍	147	9,640	+9.30
현대해상	3,290	36,800	+9.20
한성기업	42	7,720	+9.04
제일연마	73	7,320	+8.93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6월 29일	7월 6일	증감률
대우부품	130	3,565	-23.42
TBH글로벌	115	6,750	-18.52
영화속	67	1,780	-17.70
이견사업	116	14,950	-17.39
한솔홀테크	135	2,025	-17.28
보락	166	3,350	-17.16
대호에이엘	123	5,440	-16.64
폴텍시스템	67	1,685	-16.32
티에이치엔	43	2,820	-15.96
세우글로벌	36	1,770	-14.41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6월 29일	7월 6일	증감률
장원테크	74	9,250	+31.89
알에프제마	49	4,580	+31.44
제일제강	63	1,855	+31.00
제너셀	29	2,580	+25.97
삼우엠스	57	1,135	+25.55
디어엔티	30	2,725	+24.04
네페스신소재	117	27,000	+23.70
제나스	380	13,800	+22.46
모바일어플라이언스	102	5,600	+21.07
피델릭스	55	2,255	+19.51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6월 29일	7월 6일	증감률
인터볼스	53	9,400	-34.36
도필드	50	2,905	-26.68
중앙오션	82	4,775	-24.50
디딤	97	3,600	-23.61
세중	62	4,385	-22.23
동방전기	30	2,845	-21.97
에림당	253	14,000	-21.43
에코플라스틱	41	2,055	-21.41
오리콤	63	6,740	-18.99
헬너RF제약	614	9,850	-18.78

자원 가공기술 '장원테크' 남북경협 기대감 31.9% 급등 자금조달 '삼우엠스' 25.6% '네페스신소재' 23.7% 쑥 임시주총서 이사 후보자 전원 사퇴 '인터볼스' 34.4%↓

MLCC 기능이 탑재돼 원가 절감과 더불어 원활한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제일제강은 전주 대비 31.00% 올랐다. 제일제강은 최대주주인 최준석 씨의 보유주식 397만8130주와 기타 특별관계자인 디비피아의 보유주식 53만3109주를 최용석 씨(250만 주)와 류상미 씨(201만239주)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총 양수대금은 185억 원이며,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최용석 씨의 변경 후 지분율은 9.60%다. 삼우엠스와 네페스신소재는 자금조달 기대감에 전주보다 각각 25.55%, 23.70% 상승했다. 삼우엠스는 지난달 25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아스트라 스마트 글로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제10회 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일에는 운영자금 마련을

사 및 사내이사 후보자 전원이 사퇴하며 이사 선임건이 미상정됐다고 공시했다. 인터볼스의 주가는 이날에만 전 거래일 대비 27.35% 크게 하락했다. 지난달 28일 장 미감 후 혈우병 치료제 전문기업 넥스트바이오의 지분 60%(1만3200주)를 36억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토플드는 차익매물이 대거 출회하면서 전주 대비 26.68% 하락했다. 공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토플드는 6.44% 내리매 장을 마감했고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제너셀 티웨이항공의 코스피시장 상장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던 에림당은 지난달 18일 티웨이항공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도 에림당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전주 대비 21.43% 하락했다. 이 밖에 중앙오션(-24.50%), 디딤(-23.61%), 세중(-22.23%), 동방전기(-21.97%) 등이 약세를 보였다. 이민호 기자 minori3032@

풍부한 현실의 사례를 통해 손쉽게 경제학을 이해한다!

이준구 교수의 열린경제학

- ◇담배, 비싸면 과연 끊을까?
-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더 잘산다고 할 수 있을까?
- ◇소득이 커지면 행복감도 따라서 더 커질까?
- ◇세계 각국의 빅맥 가격을 매년 비교해 보는 이유는?
- ◇겉만 보고 중고차를 사기가 겁나는 이유는?
- ◇누가 중산층이고, 누가 빈곤층일까?

이준구 지음 | 584쪽 | 문우사 | 값 20,000원

"역시,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학자가 역사와 세상을 바라본 평가이다!!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힘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정의(?)로 포장되어 있다. 반면, 힘 없는 민족과 개인은 비극의 삶이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힘이 지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은 무엇일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역사 속 지도자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한다.

김종재 지음 | 304쪽 | 마인드맵 | 값 15,000원

2017년 대한민국미술선정 우수미술도서

신자유주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승자독식정치를 통한 감세정책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직지만 부유한 나라 싱가포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다시 보기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분석

고길근 지음 | 372쪽 | 문우사 | 값 15,000원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

중국의 왕제들은 여성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황후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까?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

짜오지옌민 지음 | 광복선 옮김 | 382쪽 | 마인드맵 | 값 16,000원

2000년 동안 이어진 화교들의 삶정리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 1

김동하 지음 | 194쪽 | 마인드맵 | 값 12,000원

문의: 031-901-6542 www.munu.co.kr | 문의: 070-7550-3758 www.mindtap.co.kr

미래테크 “OTP 솔루션 1등 기업 도약”

마켓하이로

국내 시장점유율 70% 확보
신용카드 결합 제품 판매 축
일본·인니 등 13개국 수출
사물인터넷으로 영역 확대

미래테크놀로지는 올해부터 OTP (One Time Password·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 신제품의 매출 증가와 OTP 신기술 기반 사업 다각화로 외형 및 실적 성장을 동시에 이룰 전망이다.

미래테크놀로지는 다우키움그룹 핵심 계열사로 1997년 설립됐다. 네트워크 유통회사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0년부터 금융권에 OTP를 공급하면서 인증·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OTP는 30초 또는 1분 등 정해진 시간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인증보안 시스템이다. 현존하는 보안시스템 중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솔루션으로 꼽히고 있다. 탁월한 사용 편의성과 최근 정보보안 시장규모 증대에 따라 국내 OTP 누적 이용자는 2016년 1800만 명에서 2017년 2137만 명으로 증가했다.

미래테크놀로지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시간동기방식 토론크 OTP를 개발했다.



미래테크놀로지 전경과 정준태(왼쪽) 대표이사.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시간동기방식 카드형 OTP를 출시하면서 국내 OTP 시장점유율 약 70%를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신용카드를 결합한 카드형 OTP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모바일 간편결제, 스마트뱅킹 증대에 맞춰 모바일 OTP를 출시했다.

미래테크놀로지의 OTP 핵심 기술은 차별화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자체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해 공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제품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보급형 제품과는 달리 주문형 제품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주요 거래처는 일반기업과 공공시장의

경우, 2012년 말 22개사에서 2017년 말 134개사로 증가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터키, 일본, 인도네시아 등 세계 13개국에 OTP 솔루션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와 결합한 카드형 OTP를 개발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테크놀로지는 OTP의 휴대성 및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토론크형 OTP를 카드형으로 새롭게 개발해 출시 5년 만에 30배에 달하는 판매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카드형 OTP 공급 물량은 82만 3000개를 기록해 2016년 32만 2000개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안으로 RFID를 적용한 카드형 OTP 개발로 교



토론크 OTP(위)와 카드형 OTP.

통카드 및 출입통제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증대에 부합한 스마트 뱅킹 서비스 보안을 책임지는 시큐어 모바일 OTP, 생체인증(FIDO) 기반의 바이오 OTP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환경에 적합한 차량용 IoT OTP 솔루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준태 미래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OTP 솔루션 1등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까지도 OTP가 책임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한국유니온제약, 이달 코스닥 입성 “선진 GMP 공장 신축, 제품군 확대”

2020년부터 신공장 본격 가동
정제·캡슐제 등 경쟁력 확보
주사제 시장 독보적 지위 전망

“선진GMP(cGMP) 규격의 제조시설 신축을 통해 판매 품목 수를 확대하고, 개량 신약과 제제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중장기적인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확보하겠다.”

백병하(사진) 한국유니온제약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다.

1985년 설립된 한국유니온제약은 의약품 제조·판매, 해외수출, 수탁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온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이다. 대표 의약품으로는 항생제 ‘케포돈주’, 혈관 확장제 ‘리마스타정’, 위산분비 억제제 ‘뉴란소캡슐’,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유니히알주’ 등이 있다.

백 대표는 “정제와 캡슐제, 액상 주사제, 세파반람 주사제 등 전 제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 경쟁력을 가진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최근 항생제, 순환기계류, 근골격계류, 소화기계류의 기존 4대 주력 제품군에 추가로 호흡기계류와 비호흡기계류의 개량 신약을 개발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함으로써 제품군을 6개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니알포 연질캡슐, 유니페나신 정, 유니네콜 정 등의 개발을 완료했고, 유니코나졸 주사, 유평시민 정, 유니



알포 정 등의 개량 신약과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이 회사는 현재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주사제 품목 생산능력(Capa)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신공장은 주사제 전용의 cGMP 규격의 제조시설로 건설될 계획이다.

백 대표는 “2020년부터 신공장이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시작하면 주사제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허가품목 수 406개 중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124개의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는 현 상황을 벗어나 판매품목 수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회사는 신성장동력 발굴 위해 아타머(Aptamer) 활용 공동 기술개발 중이다. 인터올리고사부터 표적 조영제 전용 실시권을 하여 받아 유방암 조기진단과 표적치료 진단용 PET(양전자 단층촬영) 조영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항후 파이프라인의 확대를 위해 인터올리고의 표적 항암이식제 우선협상권도 확보한 상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이달 9~10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청약은 17~18일로, 이달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남주현 기자 jooh@

‘마이크론 中 판매 금지’ 반기는 바른전자 솔고바이오, 척추 디스크 임플란트 특허

대체 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

중국이 미국 반도체사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바른전자가 마이크론의 메모리 사업 부문에서 대체 가능한 경쟁 제품을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전자는 해외비중이 80%로 LCD 카드, 마이크로SD카드 등 메모리 사업 부문에서 마이크론 제품과 경쟁을 해왔다.

9일 바른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메모리사업부에서 LCD카드, 마이크로SD카드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바른전자 관계자는 “아직 결정 난 사안은 없지만, 이번 마이크론 판매 금지와 관련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상품이 될 수 있어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전자는 수출기업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해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에서 두드러진 강달러 현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바른전자는 OEM, ODM 방식을 통해 해외에서 안정적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부문 제품들은 미국 시장 비중이 가장 크고, 동남아시아 등 제3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해외시장 확산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달러가 강세화를 보이면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대내외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신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업체인 UMC는 2일 중국 푸저우시 법원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최두선 기자 sun@

“글로벌 시장도 꾸준히 확대”

솔고바이오가 신경외과용 척추 디스크 삽입용 임플란트의 국내 특허 취득을 완료했다.

메디컬 헬스케어 전문기업 솔고바이오가 척추용 임플란트 신제품인 척추간 삽입용 케이지(Cage)의 국내 특허 취득이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런 특허 취득 제품은 신경외과용 임플란트로 요추 디스크 공간에 삽입된다. 이 제품은 척추 증만증, 척추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척추 관련 질환 치료에 적용 가능하다. 이 임플란트는 척추간에 삽입되는 케이지의 몸체가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도록 개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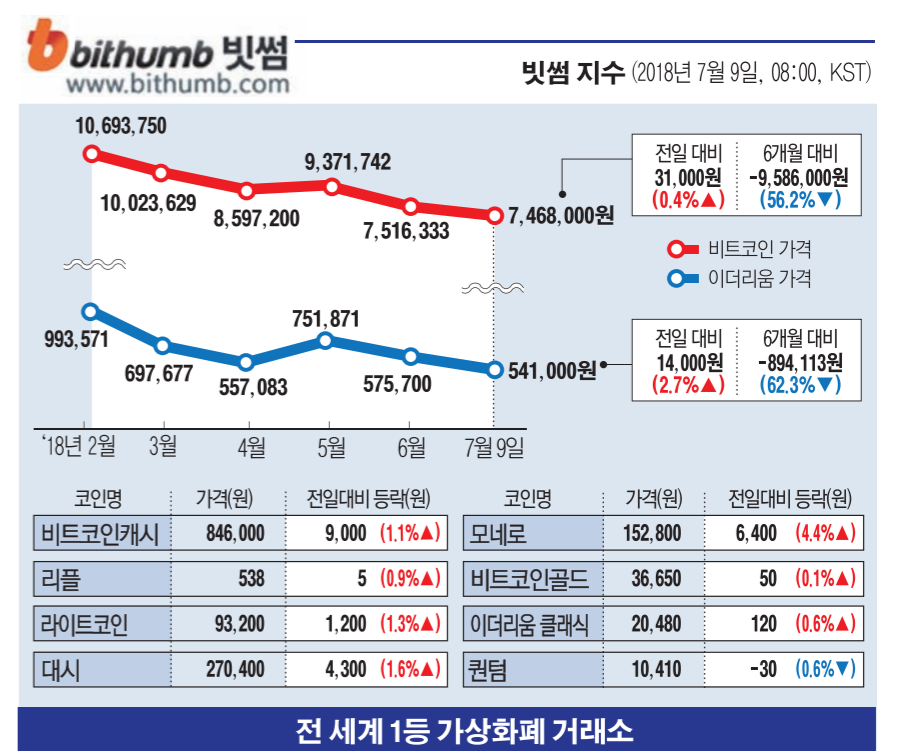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척추질환 수술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 및 디스크 치료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라

며 “시술 시 최소한의 수술 기구와 임플란트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술자가 디스크 공간에 쉽고 정확하게 임플란트 삽입이 가능하고 시술 후 척추를 강화시킬 수 있는 특수 디자인으로 고안돼 질환 치료 시 활용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특허 취득을 시작으로 해외 인증까지 진행해 글로벌 시장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미국 FDA 8건, 유럽 CE 10건 외 중남미, 아시아 등 9개국에 27건의 임플란트 제품 허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경추용 임플란트 ‘블랙스완’의 중국, 일본, 미국 특허출원을 완료한 바 있다. 솔고바이오의 임플란트는 미국을 포함한 남미시장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대리점을 통해 현지시장 공략도 진행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BRAVO My Life
2018. 07 VOL. 43

소희와 20살을 고대하는 '새해'부터 '새해'가 온다.
어른이 된 슬픔이라도 고쳐야 특이할까?
바른전자의 여자 배우 박정수의 딜레마
중점을 수 없는 배우 김수미의 매력
이상국가인위, 어머니에게 온 편지

sincere tongue
새로운 어른들의 어휘문화

COVERSTORY 새로운 어른들의 어휘문화

- PART1. 시니어의 화법이 중요한 이유 -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 PART2. 목소리 & 제스처 코칭 - 유려한 문장 없이 유연하게 말하는 법
- PART3. 사춘기 손주 상대법 Q&A - 손주가 갑자기 비속어를 쓴다면?
- PART4. 무심코 나오는 한마디, 다들 - 이혼을 부르는 말, 행복을 키우는 말
- PART5. 상대에 따른 애도 방법 - 꼭 알아야 할 위로의 언어
- PART6. 나는 통하는 사람일까? - 소통일까? 불통일까?
- PART7. 세대공감 언어 - 신조어 총정리 나의 신조어 레벨은?

제2인생

태양광 발전, 내 노후 밝게 비출까?
노후에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시니어 사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말 그대로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 초기 자본만 확보되면 육체적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많은 시니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투자자를 설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시니어에게 정말 괜찮은 노후 대비 사업일까?

‘숲속의 서점’ 옹골찬 귀촌 프로젝트

산과 산 사이 도로를 줄기차게 달려 산 첩첩. 깊고 후미진 산간이다. 도로를 버리고 접어들면 비좁은 산길 끝자락 산 중턱, 후련하게 탁 트인 거기에 나무선(57) 씨의 거처가 있다. 풍경을 절반은 산, 절반은 하늘. 또는 절반은 청풍, 절반은 구름. 절정 자리처럼 개활하니 명당이었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신라와 만남 사랑

인생 마지막 성장의 기회 '죽음' 이화여자대학교 최은식 교수

“짜릿함의 철학은 비움과 받아들이기” 소병진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신라 노래와 함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기 자연인, 신현대 싱어송라이터협창

브라보 근력운동 캠페인

‘브라보 체조’와 함께 백세 인생 내 손으로
시니어의 평소생활은 늘 조심조심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다가,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을 조심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평소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070 시니어 세대를 위한 ‘브라보 체조’는 균형감각의 활성화까지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도 제작해 담았습니다.

올여름엔 카테일

두 가지 이상의 음료를 섞어 만든 카테일은 그 종류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된다. 다양한 맛과 향, 청량감을 자랑하는 카테일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김행수(60), 조미옥(50) 두 동년가지가 ‘루이스 바에’ 방문했다.

레시피

고열입 예방에 좋은 멥쌀비빔밥, 양파 피클

부치지 못한 편지

시인 이상국
“내 죽거든 태워서 물치 바다에나 뿌려다오”

네 전부를 소리쳐봐.
Live Loud.
 The all-new VELOSTER



bluehands
 차량 관리 서비스는 블루핸즈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증수리/정기점검/긴급출동/휰투휰/견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1.4터보(17/18") 복합13.1km/ℓ(도심: 11.9km/ℓ, 고속도로:14.8km/ℓ) | CO2배출량: 127g/km | 배기량: 1,353cc | 공차중량: 1,285kg | 7단 DC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1.6터보(18"/7DCT/울 시즌 타이어) 복합12.6km/ℓ(도심: 11.3km/ℓ, 고속도로:14.5km/ℓ) | CO2배출량: 132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300kg | 7단 DC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1.6터보(18"/7DCT/썸머 타이어) 복합12.4km/ℓ(도심: 11.1km/ℓ, 고속도로:14.2km/ℓ) | CO2배출량: 134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300kg | 7단 DC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 1.6터보(18"/6MT/울 시즌 타이어) 복합12.6km/ℓ(도심: 11.4km/ℓ, 고속도로:14.3km/ℓ) | CO2배출량: 132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270kg | 6M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 1.6터보(18"/6MT/썸머 타이어) 복합12.4km/ℓ(도심: 11.2km/ℓ, 고속도로:14.0km/ℓ) | CO2배출량: 134g/km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270kg | 6MT(3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시스템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